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The Korean Christian Press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5FI.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월 3일 (토) 제 151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칼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애독자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 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인 생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길을 맡 기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 다. 2015년 이 한 해도 승리하는 해가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 를 기울이자.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 라"(시37:3)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약속과 은 혜에 대한 신앙을 말한다. 인생의 육적인 생활, 현실적 생활에서 하 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다. 우리 인생 주위 에 우리를 해하려 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을 지라도 그들에 의해 좌우되지 말 고 신행(信行)을 일치시키라는 말 이다. 즉, 생활하는 신앙인, 행동하 는 신앙인, 생명있는 알곡 신자가 되라는 말이다.

시편 37펀 3절에 계속 보면 "그 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 는 말씀이 있다. 이는 성도가 하나 님을 의뢰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 님의 성실된 보상을 체험하게 되 며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기름진 식물로써 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 다는 뜻이다. 아울러 진리로 양식 을 삼게 되리라, 견고히 누리리라 는 뜻도 된다.

시편 125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

고 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 하는 모든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 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 다"(시37:4)라는 말씀은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길을 제시해주 고 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소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연 하장에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소 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써서 보낸다. 그러나 그 만 가지 소원을 성취시키는 길은 오 직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은 여 호와를 의뢰하는 것보다 더 전진 한 신앙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의 미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 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 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 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좋아한다, 제일로 여긴다, 높인다,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마 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오직 여호 와만을 기뻐해야 한다.

서 3장 7-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 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사도 바울은 회개한 후 빌립보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고 고백했다. 그는 자기의 민족도 혈통도 가문도, 학벌도, 선행도, 가 산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가장 좋 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셋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

시편 37편 5절은 "너의 길을 여 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 가 이루시고..."라고 했다. '길'의 원어 '페렉'은 신자의 모든 염려되 는 일들과 알 수 없는 전정(前程) 을 가리킨다. 그리고 '맡기라'는 의 미는 첫째로 모든 문제를 다 여호 와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주님 앞 에 제출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신 자의 바른 태도다.

둘째로 '맡기라'는 것은 기도한 다는 뜻이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대로 이뤄지도록 맡기는 것이다. 셋째로 '맡기라'는 것은 '굴러버린 다'는 뜻이 있다. 큰 짐, 무거운 짐

을 지고 인생길을 가기만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짐을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굴려버 리기는 쉽고도 유쾌한 것이다. 우 리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굴 려버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맡기라'는 의미는 맡겨 지운다, 업히운다는 뜻이 있 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더 나아 가 내 인생 전체를 그에게 맡기면 그가 맡아주신다는 것이다. 내 인 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운명 이 곧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여기 에는 승리와 평화, 사랑, 영광만이 있는 것이다.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 다"(시37:6) 여호와 하나님을 의 뢰하고 기뻐하고 인생길을 맡기 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이다. 이 말씀은 만천하에 네가 형 통함을 보이겠고 네가 영광스럽 게 됨이 태양이 중천에서 눈부시 게 빛남같이 높이, 넓게, 밝히 드 러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사랑의 하 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 전능 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 길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신년 초대시

곡념의 원혜

노선희 전도사

智的礼學外對意於的时間中川正 भाई टाल भस्य १०३ गडे वा देव १४११ म 벙거벗고 두려워 떠는 국을 나의 몸에 구성은 사랑의 은혜 자락 풀러구십니다

끝내 웨아컴 트리지 중한 당신의 속내를 刑妻 驾音》 告入的 熟於即全至 夏时望从山 世界章 型으며 세상 수에 투학과 시章은 나의 Pt은에 구성은 사랑의 화해 자락을 풀러구십니다

至은 于後别的食时时的长 智程的 기다리심을 로질게 내려서 낮은 자의 전길을 보이시니 그 앞가신 풀밭 앞에 아식도 망성이는 나의 명본에 구성은 사랑의 인내 자락을 풀러구십니다

나에게 입성구셨던 자각 자각 자랑 자랑...

나를 빚어 만든 이의 상대 나는 상은 세워된 가수이 보투고 대한신 아버지의 문문상 손에 어컨신부 되어 이끌건내 새롭게 베푸신 면회장문 크게 떨어 구시며 नेरेड़ी राहिश सिंध या या मेरेड़ी इसेने प्राप



2015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만 믿고 산다!



4면

5면

신년메시지



신년특집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은혜한인교회

담임한기홍목사

11면

정성구 박사(ICSK원장)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 주님의



1/5(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6(화) 5:3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강사: 김인식 목사 (LA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1/8(목) 5:30am 강사: 권혁빈 목사 (얼비인온누리교회 담임)



강사: 진유철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1/10(토) 6:00am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Founder&Chairman)



주일예배|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일시: 2015. 1.5(월)~9(금)/5:30am, 10(도)/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이제는 속도보다 내실입니다"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의 세월호 사 건을 잊을 수 없다. 수장된 것은 꽃다운 우리들 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조리, 불합리, 이기적 보신주의로 말미암은 한국 사회와 외형 적 급성장에 눈이 어두워 온갖 세속적이고 부조 리한 기복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에 물들고 병 든 한국교회였다. 이제는 빠른 속도보다는 천천 한 내실이라는 깨달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 지는 일상의 가치와 복음의 본질을 천천히 음미 하면서 조금 느려도 궁극적인 삶의 실천으로 연 결해 나가야 한다. 조금 느리게 걸으면 느끼고 감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고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복음적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널

려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쌍소(Pierre Sansot)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Du Bon Usage de la Lenteur)라는 책이 출간되어 한 때 논픽션 부문 1위를 차지 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쌍소는 이 책을 통해 속도 경쟁 시대 에서 쫓기듯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느림의 철학' 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여유 없이 '빨리빨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발걸음 닿는 대로, 풍경 이 부르는 대로 걸으며 '나'를 맡겨 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 여도 보고, 한가로움을 즐기며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 는 삶을 권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도태나 일탈도 아니다. 빠른 속도로 박 자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접근하는 삶의 방 식의 문제이다.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 신을 깊이 성찰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며, 조금 천천히 둘러 가 더라도 인생의 근본을 바로 보자는 의지로서의 느림을 의미하고 있다. 바쁘다 고 건너뛰지 않는 의지, 시간이 뒤죽박죽 되도록 허용치 않는 의지, 그리고 우 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가는 느림이다. 아울러 그는 '여유 로움'이라는 내적 통찰을 강조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살면서 놓쳤던 삶의 의미 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다. 빠른 속도보다 천천한 내실이 자 신을 더욱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급한 성격을 가진 민족 중의 하나다. 한때 '은 근과 끈기'를 민족적 자부심으로 여기더니 어느새 '빨리빨리'가 우리 사회를 지 배하고 보편적 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느림은 '탈락' 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 더 많이 움직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강제하기도 했다. 6.25동란이후 잿더미와 같은 우리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빨리빨리' 는 오늘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결합된 신속성은 놀라운 제품 생산력으로 나타나 세계의 인정을 받 았고, 자동차, 가전, 건설,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고, 특히 속도 를 생명으로 하는 IT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했다.

반면에 '빨리빨리 문화'가 치른 대가는 어떠한가? 부실, 불법 시공의 결과 대 표적으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숱한 안전사고로 '사고 공화국'의 오 명을 쓰더니 마침내 내 자식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 을 불러왔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속 성장, 초대형교회, 선교대국으로 그 위용 을 자랑하며 달려온 한국 교회가 최근 연이은 대형교회들의 대형사고로 말미 암은 적폐현상이 기독교 안티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수많은 영혼 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속 도보다 천천한 내실이다. 빨리 먹는 것보다 소화가 중요하고, 사람을 빨리 많이 아는 것보다 천천한 만남, 진실한 만남이 더 중요하다. 빨리 열리는 페이지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볼 게 많은 페이지가 낫다. 스마트 폰이 책의 향기를 뺏어가고, SNS가 깊은 사색을 어렵게 하며, 빠른 검색 기능이 생각과 문화의 깊이를 차단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 포장된 상식보다는 알찬 내실을 선택해야 한다. 이 시대의 섹스피어는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림에서 나온다. 창 의력은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새해에는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익어가는 교회가 되 었으면 한다. 성경을 빨리 통독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주님을 아는 해가 되었 으면 한다. 깊이 알수록 십자가 복음의 진한 향기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힘써 여호와를 깊이 알자!(호6:3)

2015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만 믿고 산다!

국제 언론들, 국제사회와 미국 정치, 종교에 신중한 전망

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세계 경제와 금융, 비 즈니스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2015년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과 연준의 금리인상, 유로존의 더딘 회복, 중국의 성장률에 대 한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가 갈림길에 설 것이며, 모든 분야의 기 업들이 쉽지 않은 사면초가의 해를 보낼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민 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분열이 대두될 것이 며, 에볼라 바이러스와 동성애 문제로 세계적 정치 판도가 양극화 를 띌 것이라 전망한다.

미국사회는 먼저 오마바 대통령 재집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레 임덕 현상"이 가속되며, 이민 개혁안 실행에 따른 파장과 함께 민 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공화당 대권 후보 주자들의 부상이 예

여기에 중동에서의 '이슬람국가(IS) 영역 확장에 따른 알카에 다와의 주도권 과열 경쟁과 이에 따른 후폭풍, 서민 이미지로 지구 촌 카톨릭 교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 황의 교황청 개혁과 주류교단에서의 동성결혼 지지와 성직자 안수 문제 등등이 2015년 종교 뉴스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 레임 덕(Lame duck)없는 오바마 대통령?

지난 11월 중간선거는 사실 그 의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탄이었지만 오히려 오바마 대통

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 기간에 거 의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하 지만 최근 두 명의 대통령의 레임 덕 기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 다. 오히려 대통령이 이 남은 2년 간 더 많은 성과를 냈다. 부시 대

이 이미 수위를 넘어섰다. 시리아 에서부터 이라크 북부까지 상당 수의 도시들을 장악한 IS의 위력 은 알카에다를 훌쩍 넘어선 양상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 이집

반발로 볼 수 있다.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을 두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 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 다. IS의 세력과 규모가 확대될수 록 이스라엘의 '안전망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 에 없다. 이스라엘의 과격한 가자 지구 폭격이 오히려 이슬람국가 (IS)의 탄생에 힘을 실어주는 꼴 로 변질되고 있음이다.

'내 적의 적은 친구다(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s)'란 기치로 세력을 넓혀 가는 이슬람국가(IS)의 위세가 어 디까지 확장될지가 초미의 관심 사일 수밖에 없다.

3. 프란치스코 교황의 거침없 는 행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종교의 지도자를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 는 지도자다. 그는 즉위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영 향력은 내로라하는 강대국의 지 도자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상 수 백 명의 교황이 있었지만 프란치 스코 교황처럼 세계인들의 환호 를 받는 교황은 일찍이 없었다.

〈3면으로 계속〉

레임덕 맞은 오바마 대통령, 반전 가져올 수도 IS 세력 확장 갈수록 확대...지구촌 안전 위협 프란치스코교황의 인기·동성결혼 이슈 여전

령은 이민 정책이나 기후변화 그 리고 쿠바와의 관계 등에서 적극 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레임덕이 라는 개념의 시작은 18세기 중반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증권 거래소의 중개인들은 거의 파산 직전인 브로커들을 일컫는 말로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인들은 이 단어를 정치적 상 황에 적용했다. 미국이 건국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에 선거에서 진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은 선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기까 지 5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었고 이를 레임 덕이라고 부르기 시작

오바마 대통령은 1951년 이후 반대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 면서 남은 2년을 이들과 동거해 야 하는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나머지 네 명은 아이젠하워, 레이 건,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 령). 이 다섯 명의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상하원 모두가 반대당이 다수당을 장악하는 상 황에 직면했다. 이 기간 동안 이 룬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레이건

통령의 마지막 2년은 그의 8년 임기 중 최고의 시간이었다. AIG 에 대한 긴급 구제를 하면서 미국 이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았 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 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 하는데 부시 대통령보다 더 적극 적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후 보가 당선된다면 오바마 대통령 이 시행한 정책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지도, 미국 정치의 과제다.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조치 (executive action)는 무효로 하 기 어려운 새로운 계약의무나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지기 때 문이다.

2. 이슬람국가의 영역 확장 은 어디까지?

공식적인 나라도 아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라크-레 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스 스로 '이슬람국가(IS)'란 명칭 을 사용하며 중동지역의 지하 드(성전)중심세력으로 급부상

력 확대에 상당수의 무장단체들 이 일조를 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오만한 가자지구 폭격'에 대한

트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과격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급

부상으로 고민이 더욱 깊어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팔레스타인 가

자지구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무

고한 시민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불러왔던 이스라엘의 폭력성

(Brutality)과 이슬람국가의 폭력

성은 과연 어떤 잣대로 이분화 할

수 있는가. 알카에다와도 결별을

선언한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세

The Korean Christian Press

E-mail: wdc@midwest.edu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ww.chpress.net

祖。电。图。显

라, 범사에 감사

하라 이것이 그

리스도 예수 안

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

님의 뜻이니

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때로 무엇을 선택하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

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본

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저서 "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

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

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생사화복을 주관

하시는 전능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

님이 또한 나의 선한 목자와 사랑의 아버

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전5:18).

문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뉴저지)

20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난 해보 다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합 니다. 행복의 조건과 잣대는 서로 다르 겠지만 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 음은 한결 같습니다. 소망찬 새해와 행복한 나날을 기원하며 "지금 하십 시오"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

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 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될지도 모릅니 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 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 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 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부르기엔 너무 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스스로에게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거듭하였던 후회 덕분일까.... 행복 은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멀 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 었습니다. 그렇기에 챨스 헤돈 스펄전이 쓴 위의 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행복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룬 후에 찾아오는 행복감도 있지만, 매일의 행복이 행복한 인생을 만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행복한 나날을 위 해서는 하루를 마치며 후회하게 될 일들 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날들, 지 나온 인생에 대한 후회가 클수록 행복이 자리할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먼 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 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뒤로 미루 어놓은 일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제공하 며, 예기치 않은 상황들과 맞물려 우리 안 에 후회의 공간을 확장시키며 행복을 밀 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 확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 첫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 배하는 것입니다.

>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찬 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 는 예배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 며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 정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 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 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 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만 나 주시기 때문입니다(요4:23).

> 둘째, 성경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입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 하노라면 가까이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 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이 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

셋째,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영적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까이 계셔 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대에 넘치 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 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 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 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4:12).

2015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행복한 나날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말 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기쁨의 생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 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생 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나와 함 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 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한 해를 살기 위해 오늘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매 일 갖는 큐티(Quiet Time), 찬양과 말씀,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건네 준 친절 과 사랑의 말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고, 조작된 웃음이 아닌 내적 즐거움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노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증 대시킵니다. 새해에는 매일 행복을 선택하 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 을 시작하며, 생각난 선행, 사랑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하는 성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건네는 친절한 말과 사랑의 미소, 담아만 두지 않고 지금 소리 내어 부르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만 믿고 산다!

〈2면에서 계속〉

왜 세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주목하 는 것일까?

그는 겸손하고 청빈한 인물로 널리 알려 져 있다. 그는 권력자와 부자가 아닌 가진 것 없고 소외받는 사람들 편에 서고 있다. 교황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위적 교황이 아니라 인간미 넘치고 친근 한 교황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톨릭 이라는 기업의 회생에 성공한 CEO로 평가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교황은 일년 만에 가톨릭 브랜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프란 치스코 교황의 성공비결로 가난한 사람들 을 돕는다는 핵심역량에 집중한 것을 꼽았 다. 또 이를 위해 브랜드를 재단장하고 조직 을 재구성하면서 가톨릭 회생에 성공했다 고 평가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나 진화론에도 우호적

인 접근을 해도 "교황이기에 용서가 된다" 는 정서가 카톨릭 내부에서 이미 형성됐다. 결국 바티칸 개혁을 위해 유럽중심주의에 서 탈피하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 바티칸 은 행에 손을 대고 연관을 갖고 있는 마피아들 을 파문했고, 드디어 가톨릭 최고 스캔들, 아동성추행도 적극 대응하면서, 바티칸 개 혁을 통한 전세계 카톨릭 신자들을 "개혁" 으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행보가 과 연 어디까지일까?

4. 동성결혼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 미국장로교(PCUSA)는 제221차 미국장 로교 총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을 승인했다. 남녀가 아닌 동성애자끼 리의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지역에서 목 사들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도록 총 회가 승인하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이 라도 동성커플 주례를 금지했던 기존의 법 은 무효가 된다.

총회는 결혼에 대한 헌법의 정의를 바꾸 는 헌법 개정안(규례서 W-4.9001)을 산하 172개 노회로 보낼 예정인데 헌법 개정안 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년 안에 과반수가 넘는 노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국장로 교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동성결혼 찬성

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2010년에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한 바 있다. 교단의 방침이 이처럼 변화하 면서 42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고 교인은 3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애 허용과 관련한 주류 교단의 갈등 이 심화되는 현상은 미국장로교뿐이 아니 다. 또 다른 대표적인 교단인 연합감리교 (UMC)도 동성결혼 승인을 반대하는 교회 들과 목회자들이 최근 교단 분리를 주장하 고 나서는 등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동성애 목회자와 동성결혼을 일찌감치 인정한 미국 성공회에서도 여전히 찬반논 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1월 10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blessings be with you throughout the coming year

발행인 장영춘 목사 외 미주크리스천신문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U L SECULO / COUCA / C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메시지

양처럼 순결하고 겸손한 한 해 되기를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장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이제 을미년 2015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도 온누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빛이 두루 비 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갈등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지난 한 해는 이슬람 국가(IS) 등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의 테러위협으로 지구촌이 큰 불안에 빠 져든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형태의 테러 도 지구상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지구촌의 정 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

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중동지역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했던 한해였습니다. 중동지역

뿐 아니라 무슬림이 지배적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기독교 박해 사례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회와 성경이 불타는 기독교 탄압의 현장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히 려 종교 간의 화해와 상생의 기운이 지구촌에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 다.

새해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을 확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민족사절, 문화사절로 곳곳에서 한국인의 긍지 를 높이 들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구석구석 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둡고 미개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금년 한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반목과 사회적 갈등은 해외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진보와 보 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갑과 을의 대립과 반목을 전해 들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조국을 사랑하십니다. 대 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위대해졌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 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좌우될 필요 없이 오늘의 우리 조국 이 있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구촌의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시대가 열리 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 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는데 핵이 아니라 평화로, 대립이 아니라 화해로. 고립이 아니라 공존의 시대를 열어 북한도 당당한 세계 국가의 일원이 되어 갈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침내 그 북녘 땅에도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을미년은 양(羊)의 해입니다. 양은 순결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결과 겸손은 기독교인의 기본 덕 입니다. 새해엔 양처럼 순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의 소망 갖자 월드미션대총장/미주복음방송사장 송정명 목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2014년도 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지고 희망찬 2015 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에게 시간의 경계선을 그어 주셨다는 것은 큰 축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한주, 한달, 한해라 는 시간의 경계선을 정해 놓으신 것은 여간 지혜 로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해"라는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새 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삶을 시 작하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지난날의 아픔이나 상처는 빨리 털어버 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에 넘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다 짐이 필요 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운영 할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될 교회위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것 이라는 소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께서도 그렇게 교훈해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2015년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 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면에 남북이 분단된지 70년이 되는 해이기 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매를 맞아 바벨론 포 로로 붙들려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회상 되는 해가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사나라의 고레

스 왕 때(BC538)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지난 70여 년 간의 분단의 아픔을 종식시키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구체적인 기도운동이 시작되는 해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교계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새해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교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환골탈퇴해서 박수도 받고 신바람 나는 일들을 주도 해나가 보겠다는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 심령도 마찬 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위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주실 것 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相生(상생)하는 高揚(고양)된 새해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 회장 **엄규서 목사**(윌셔크리스천교회)



어느 날 몸 지체들이 비상 회의를 열었다고 합 니다. 코가 일어나 불만이 가득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중에 혼자 놀고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그 입 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하고 먹고 싶 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에 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입 때문 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겁습니

까? 그 무거운 몸으로 몸짱 만들겠다고 밤낮으로 뛰어 대니 발이 아파 죽겠 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입이 혼 자 먹고 또 먹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손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먹으려면 자기 혼자의 수 고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나 닭을 보시면 그것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잘 먹는데 입은 날 보고 이것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심부름을 시키고 자 기만 먹습니다. 정말 메스꺼워 견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무언가 를 보여줍시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 지도 말고 입에게 가져다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되어 즉시 입을 굶기지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손과 발은 후들 후들 떨렸습니다. 눈은 앞이 가물가물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입이 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 된 희망찬 새 신년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제가 먹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 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 뭅니다.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그 말에 다 른 지체들이 수긍을 하고 예전처럼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서 건강한 지체로 회복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의 특징이 그렇듯이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다양 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도 태어난 환경, 배경, 재능, 성품, 교육 수준, 취미, 생활수준, 종교 등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 아 끈임 없이 발생하는 불협화음으로 교계와 사회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목소 리를 낮출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해는 밝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서로 연 대, 협력, 상생하여 더욱 건강한 가정과 속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고양

매일 말씀묵상, 영성일기 쓰는 2015년 UMC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드림교회)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가정에 그 리고 하시는 사업과 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 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책에 수 녀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섯 가지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해본다 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매일 하는 모든 일을 아무 생각 없 이 건성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들 어간 지향을 지니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향을 지니고 사는 삶이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 빛나는 별을 한 개씩 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기도의 제

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향을 두고 하루를 지내 다 보면 어려운 일에도 짜증을 덜 내게 되며 기도가 일상의 삶과 좀더 구체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는 평범한 결심을 더욱 충실하 게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고 싶은 게 으름에 빠질 적엔 "내가 아니면 누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다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고 싶을 적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자신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감동을 지니고 겸허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자기 안에서 빠져 나와 주변을 보고 경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소홀하기 쉬 운 내 주변의 사람들, 사물들을 좀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경탄하며 고마 운 표현을 자주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으로 모든 일에 기쁨을 발견하려 애쓰고, 이 렇게 찾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멋진 나무들, 꽃향

기, 새소리, 사람들의 웃음과 격려의 말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지만, 때로는 예 기치 않은 상황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시련 속에서도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어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항상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고운 말씨를 쓰려고 노력하는 결 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극단적인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골라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해인 수녀님은 고운 말씨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평소에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이거나 고치고 싶은 말을 적고, 오른쪽엔 좀더 긍정적이 고 남에게 기쁨을 주게 될 아름다운 말을 적어놓고 기회가 올 적마다 연습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페이지에는 내가 실수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말.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말을 적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하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 하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생활일기는 자기 자신이 초점이라면 영성 일기는 주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매일 매일 주 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5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경민, 김용원, 김은숙, 김정민 김재상, 박수진, 서옥석, 소유영, 임은아

- 기독교 교육학과(M.R.E) 신주희
- 선교학석사(M, Miss) 김명자, 김필현, 이순옥, 황혜옥
- 여 교역학(Diploma) 김혜경, 정경숙
- 신 학 사 (B, Th) 고엘림, 조혜진

시: 주후 2014년 6월 2일(월) 오후 8시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미주한인예수교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장 로 회

TO DE LA VED CONTROL OF TO CONTROL OF THE THE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메시지

작은 것부터...한 발자국만 내딛자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은 근대사에서 세계의 희망과 등대였습니 다. 뉴욕을 바라보면 개화기가 도래하고 뉴욕을 등지고 돌아 앉아 있으면 오늘의 큐바나 북한처 럼 새벽을 기다리는 심야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와 한국의 경우도 뉴욕을 바라보기 전에는 반만 년동안 잠을 자는 대륙성 문화 그대로였기에 새 해를 맞이하면 고작 중국은 만두 한 접시, 한국의

경우는 떡국 한 그릇 먹으며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견지명의 눈이 뜨여 언필칭 대국이라 자처하 는 중, 일, 러를 뒤로 하고 뉴욕을 바라보아 선진 개화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개화기의 한국 신년맞이 떡국 한 그릇시대에서 덕담 한마디식의 시대로 발 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문화의 핵인 구주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후발 오 순절 선교사님들이 성령세례 받는 복음을 전해줌으로 복음화한국, 성령세 례화 한국에 힘을 모았고 신년맞이 덕담 한 마디 시대에서 비전(꿈) 한마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꿈은 이루지고 만다는 꿈의 황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 봉일친미(封日親 美) 정책의 꿈을 꾸어 지금에야 전자, 국제신용평가 등에서 분야별로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제 박정희 대통령은 달구지가 다니기에 좋은 곡선의 산비탈 차마고도를 갖고는 경제 부흥이 어렵다며 80%의 산악과 고작 20% 의 가용 평지 나라에서 씽씽 달리는 고속도로 건설의 꿈을. 여의도에 한 목 회자는 세계 제일의 교회부흥의 꿈을. 삼성 이건희 회장은 세계 초특급 기 업의 꿈을 꾸어 각자의 꿈들은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고 속속 이루어졌 고 아직도 꿈의 성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실용적으로 발전하여갔습니다. 공중 다이빙 같은 꿈에 내 운명을 맡기기보다 꿈이 성취된 실적을 점검하고야 믿는 승률 확인의 시대로 발전 하였습니다. 신년맞이 역사를 정리하면 떡국 한 그릇 시대→덕담 한마디 시 대→비전 한마디시대→승률 높은 실적 확인시대로 발전사가 정리되었습니 다. 지금은 꿈이 성취된 실적확인시대가 되었습니다. 미, 중, 러, 일에도 없었 던 한국에 여성대통령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독일통일을 보고는 남북통일 의욕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번져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이라는 비전 한 마디로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놓았습니다.

6.25 적화무력남침은 우방국 미국과 UN에 혼줄이 난 이후 뉴욕과 UN의 눈에 뜨이지 않게 무기보다 무서운 암약 전술 곧 투표 남침으로 적화 한국 을 점령하고 싶어 공을 들이기를 60년, 이제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건건이 발목을 잡고 국내 턱 밑에서 테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비난은 칭 찬으로 해석하여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 재물로 주려하는 성탄 예수 곧 하나님을 닮기만 하면 대로가 열리고 번성과 창대를 막을 자가 없다는 성경 진리만이 길이였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반드시 피할 활로는 열려 있다는 진리대로 국제 외교력으로 활로를 열 었습니다. 좁은 국내에서 길이 막히면 넓은 세계에서 길을 찾는 전략 해외 기업진출 르네상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시대, 부산에서 유럽으 로 기차를 타고 갈수 있는 철도 건설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둘의 대륙이 아니고 하나의 대륙 하나의 상권으로 그 주

도권을 한국이 잡고야 말겠다는 이니셔티브의 꿈은 꿈 사이즈가 너무 커 국민은 대통령의 꿈에 동참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허 드슨 강의 자유의 여신상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크고 작은 선 거전에 박대통령은 얼마나 유권자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허리 굽혀 얼마

나 악수를 많이 했으면 손등이 퉁퉁 부어 붕대를 감고 자유의 여신상처 럼 높이든 박 대통령의 손을 보고야 시진핑은 뒤늦게 개화기를 맞아 봉북친 남(封北親南)으로 돌아섰고 박대통령은 중국 청와대에서 중국의 고사 내용 을 중국어로 연설하고 TV로 중국 전역에 중계되어 년 600만 중국의 상류층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오고, 프랑스에서 불어로, 영국 버킹컴에서는 영어 로 연설하여 유럽관광객을 불러오고 집권 2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해외 건 설수주를 502억불 일거리를 맡아오는 실적과 외교력에, 국민들은 일을 내 고야 말 초유 여성 대통령으로 알고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의 피겨 퀸 결승전을 보고 한국을 보게 되어 친필 편지를 김연아에게 보냈고,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은행 총재와 유엔사무총장 한국인 임명의 낙점을 통하여 선구적으로 한국 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희망 등대 뉴욕은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 성취할 수 있는 일거리가 너무 많고 그 일거리는 지금도 또 뉴욕을 기다리고 있습 니다. 뉴욕의 선교사명자는 더 더욱 눈을 들어 넓은 세계의 밭을 바라보면 추수할 일거리가 무한정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 눈으로 세계를 보 면 5대양 6대주가 뉴욕을 기다리는 대로길 뿐입니다.

새해에는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어디 해보자, 할 수 있어, 한 발자국만 걸어보면 방해되는 장애물장벽이 파열음을 내고 무너지며 길이 열리고 확 실하게 잡을 수 있는 꿈이 보일 것입니다. 세계의 희망 세계의 등대 뉴욕한 인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한국을 다시보고 세계를 보며 할 수 있는 작 은 일에 손닿는 곳에 한 발자국만 내어딛는 것으로부터 불을 지피는 불소시 게가 됩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빕니다.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오렌지카운티교협회장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2014년도 주의 은혜가운데서 지나가고 새로운 201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람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하나 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하 십니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배

로운 기름이 옷깃에 내리며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을 통 해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새해는 더욱 기도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

도로 연합하므로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행1:14). 기도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로 연합하기 위해서 믿음과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세 사람이 연합 하여 기도하고, 두세 교회들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해는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상처가 많은 이 시 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사랑으로 연합하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 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할 때에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인줄 알리라'(요13:35).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므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 서하고 용납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새해는 성령으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 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 지 말지니라"(갈5:25-26).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 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연합하므로 성령으로 행 하는 삶을 살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 다. 내 육신의 욕심을 좇아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므로 하나님 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합하므로 하나 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새해에 기도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연합하므로 하 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한 해 되길



오레곤밴쿠버교연회장 오광석 목사(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 여 러분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해에는 더 좋아지 는 일들로 가득 차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나아지고, 각 가정의 살 림살이도 나아지고, 교회도 점점 더 부흥되고, 하

고 있는 모든 사업도 잘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러나 우리의 그런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저절로 모든 것이 좋게 바뀌지는 않

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아진다는 전 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될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이라도 돌리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

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청년이 신앙심이 깊은 어른에게 묻기를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천국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그런 교회를 아신다면 저 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분이 대답하기를, "그런 교회는 이 세 상에 없을 걸세.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교 회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닐 테니 말이야!"라고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남을 위 해 나를 희생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민사회에서, 그리 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 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장되는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 에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의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신앙인으로 이민의 삶을 성실하게 개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는 사명 감당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성도

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선배 목회자와 초 기 동포 이민역사와 전통을 지난 41년 동안의 역 사가 말해주듯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까 지 왔습니다. 뉴욕교협의 41년 역사, 이 역사를 기

억해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당당하게 불의한 일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뉴욕교협은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아리노라 그 일이 시작 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사42:9)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일을 이루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 훌륭한 한 회기를 마쳤 음은 물론이고, 2015년 새 회기 역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뉴욕교계와 모 든 성도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회기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뉴욕

교협의 41회기는 "성령이 이끄시는 화합과 소통의 교협"(엡2:16-17)을 금 번 회기의 목표이자 새해 다짐으로 삼겠습니다. 뉴욕교협이 추진하며 진행 하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이 다짐에 맞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갖 는 목회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성도들이 갈급해 하는 영적 성장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역을 전개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새해에 이루어질 교협의 모든 사역에 동참해 주십 시오.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 충언하여 주십시오. 2015년 뉴욕교협의 새해는 이전과 다른 새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 망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THEOLOGICALSEMINARY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_edu, gtskoreanstudies@gmail_com

21月7日 (4) (4) (4) (4) (4) (4)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와 복음의 진보

변미화, 정윤진 선교사 St. Paul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주인도한국선교부)

WEDED /EDED /EDED

기독교 교육(학교운영)을 통한 전도와 제자 양육! 이것만이 가장 폭넓은 지름길이라고 강력하게 주 장하고 싶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 여 그것도 어릴 적부터(3-5세 이 전) 복음을 듣게 하여 말씀을 부지 런히 암송하고 잘 실천하며, 찬송 을 부르고 복음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서 전도까지 하게 하는 이 일, 이 선교사역!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힌두와 모슬렘 부 모들이 단지 자기 자녀들의 재롱 으로 귀엽게 듣지만 그러나 그 속 에서 말씀과 찬송이 살아서 움직 이고 역사하니, 이 크나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학교에서 8시간 이상 신실한 크리스천 교사들 밑에서, 청교도 신앙정신으로 교육받는 바울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일! 말씀의능력, 성령님의 역사, 복음의 생명력, 구원과 제자양육이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다.

10년가량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 전에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면서, 모슬렘, 힌두들인 부모님들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 그 광경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 우며 오로지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만 얻어질 수 있는 확실한 열매이 며 놀라운 기적적, 역사적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 학교에서 배운 졸업생들 을 조사한 결과 거의 80% 이상이 신자가 된다는 통계를 읽고. 나는 우리 바울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하 여서는 90-100%를 이루어야 되 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마7:7-8, 눅18:1-)하고 기도드리면서 99% 는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결실과 열매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암송에 전력을 다하도록 교사들과 학생들 을 격려하였다. 신구약전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정하여 학년별로 반드시 외워야만 되는 분량들을 정하여 주어 철저히 암 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 조(catechism)도 암송시키고 있

. 왜냐하면 타밀나두주에 있는 트 리나벨리에 도나브로라는 공동체 가 있는데 그곳 사역을 눈으로 직 접 보고 왔다. 그 사역은 막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힌두탬플에 가서 신 에게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 자아이들을 몰래 돈을 좀 주고 사 와서 양육(교육)시키는 곳이다. 에 이미카마이클 아일랜드 여선교사 가 시작한 것이고 그 여선교사의 무덤도 그곳에 있다. 수 백명의 여 자아이들이 있고 그 여자들이 자 라서 인도 각 주에서 일을 하고 결 혼을 하여 가정도 이루고 있으며,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돈독한 신 앙심을 배우며 성장하였는지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꼭 한번 방문하기를 권하는 마음이다.

내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75

덮음같이 이 땅이 복음으로 덮여 지는 그 날이 오리라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 일을 위하여 베리카이에 10 만평의 땅을 구입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인도학교들 을 복음으로 살릴 크리스천 교사 양성 사범대학이 세워지는 날에 더욱 복음의 진보가 빠르게 되리

1978년도에 남편 정윤진 선교사 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10년, 20년 선교를 하였던 서구 선교사분들을 강사로 모셔와(Winter, Pierson, Peters, Ron등) 선교훈련을 받았 을 때(동서선교대학원) 부족한 저 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

학생들과 교사들 집이 가정교회 모임 장소로 이제는 더 확산하여 모든 교사들이 금요일 오후 4시경 부터 한 시간 동안, 자기 집으로 친 구, 이웃 등을 초대하여 말씀, 기 도, 찬송 등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바울학교의 선교사역(딤후 2:2)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에 서만 만나던 교사들을 집으로 데 리고 가서 간단한 음료를 나누면 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제목에 따라 기도드리며 찬송할 때 마음 문이 열려 학교에서 나누지 못했 던 점들을 나누게 되었다고 간증 하였다. 또 귀한 일은 믿음이 연약

하던 교사들도 누구든지 자기 집

바울학교는 신학교와 교회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보호막과 방파제가 잘 되어주고 있다. 우리 신학생들이 바로 바울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도자들이요, 또 주일학교교사이므로 주말이 되면 바울학생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온 동네집을 방문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Sunday School로 연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복음의 큰 진보요 역사인 것이다.

해마다 12월 한달 내내 캐롤 전도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한다. 각 주 언어로 찬송배우기, 달력준비, 각 언어로 전도지 준비 등을 하여서 첫날이 되며 6시30분부터 8시30분 이상까지 열심히 온 동

인도를 복음으로 살리는 첫 길이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바탕위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인도전지역 학교로 파송된다면, 교사들이 바로 전도사로 또 언어가 다른주로 가면 곧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독교 사범대학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정부에 신청하였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신실한 믿음의 교사들이 인도 11 억 인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어릴수록 기회가 더 많고 중 요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더욱 빨 리 사범대학 인가를 받도록 엎드 려 기도드리고 있다.

② 기드온 300명 군사를 뽑아숙식을 같이 하면서 어릴 적부터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고, 특별 훈련으로 양육시켜서 인도와 주변국가들(네팔, 부탄, 티벳,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로 선교사와 복음전도자로 파송하여마28:19-20, 막16:15, 눅24:47, 요 20:21, 행1:8,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22:20절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결론적인 한 마디! 어릴 적부터 말씀, 기도, 암송, 찬송으로 그들의 피가 되어 그 속마음에 가득히 귀 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는 일! 이것 이 중요하며 선교사역 핵심인 것 이다. 그들이 교사가 될 때는 인도 가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야생동물이 집짐승이 되어가는 예이며 힌두사원에 바쳐지는 아이 들을 출생 그 다음날 혹은 일주일 3개월 만에 살그머니 구하여 온 여 아들을 키워서 지금은 훌륭한 크 리스천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크 리스천 일군들이 인도 27개주에 계속 퍼져 나가면, 그때에 분명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도를 덮을 것이다. 이러 한 생각과 계획과 노력과 희망이 우리 바울학교 운영과 교육이다. 우리 학생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메일: aecsiec@hanmail.net

학교운영을 통한 기독교교육으로 전도와 제자양육이 선교의 폭넓은 지름길 어릴 적부터 말씀, 기도, 찬송 가르쳐 교사로 양육되면 인도전역이 복음화

세가 된 책임자가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난지 3일 만에 힌두사원에서 이곳으로 데려와진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모두들 일주일 만에 또 는 하루 만에 라고 말들을 하는 것 을 들었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부 터 끓어오르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있었다.

그중 kanah여인(61세)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BA, B.Ed, M.Ed, 석 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일하 고 있다. 그 카나 교사를 보면서 나 는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도 전을 받는지 모른다. '기독교학교 교육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 앞 에서 역사 앞에서 말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다.

영국을 살린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라면, 또 무디 목사님 때도 주일학교를 살려서 믿음의 견고한나라가 되었고, 인도도 이 기독교학교교육을 인하여 이 어두움의나라에 빛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학교 교육은 일주일내에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최대의 선교가 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갈 때는 물이 바다를

다-그것이 바로 제3세계, 특히 모슬렘, 힌두지역에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주시려는 그 비전이 이제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뤄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존귀를 올려드리는 바이다.

학생들 가정이 전도의 징검돌 (stepping stone)로 바울학교 초기에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그 집들을 방문하고 그 이웃들을 방문하여 안심된 마음에서 전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contact point)와 관계성이 되었다.

학생들을 각반에서 뽑아 그 집에 가서 교사들이 금요일마다 구역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렸고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등을 하였다. 주변 이웃도 초청하여서 함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여러 곳의 기도모임 장소를 둘러보면서(3:30-4:30p.m. 사이) 느끼고 배운 점은역시 신실한 교사들은 착실하게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즘은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을 모아서기도모임을 하며 말씀을 읽고 있다.

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모임을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많은 성장과 성숙과 복음의 진보가 가정교회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감사한다.

100만 가정교회가 인도 땅에 세워지도록 간구 드린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핍박) 지역에서 보호막 으로, 방파제로 모기도 못 죽이는 힌두인들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며, 교회당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상황에서 AECS(아시아 신학대학 및 대학원)와 IEC교회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도 바울학교 는 보호막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 는 것이다. 방파제 역할을 하여서 파도가 쳐도 염려 없듯이, 바울학 교 1500명 학생들, 2000명 학부모, 3000명 이상 형제자매들, 수 천명 의 친척들, 수 천명의 이웃들, 수많 은 학교 주변사람들 등 2만여 명이 바울학교를 잘 알고 귀하게 생각 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달력과 전도지를 주고 찬송, 말씀 증거, 기도를 하면서 전도한다. 얼 마나 많은 열매를 이때 거두고 있 는지 모른다. 우리 팀들도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벌써 15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 상점마 다, 가정마다, 우리 바울학교 사진 과 말씀이 적혀있는 것을 일년 내 내 걸고 있고(한 장짜리 달력, 올해 는 6장짜리), 모두들 주변이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귀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인도는 행사나라라고 할 수 있 을 정도로 기능(function)이 많은(힌두절기 공휴일, 모슬렘 공휴일) 나라이다. 그래서 한달 내내 예수 님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모 든 동네에서 기다리는 행사가 되 어졌다.

주님! 더욱 빨리 속히 이들의 구 세주가 되시옵소서. -아멘-

지향점

① 기독교 사범대학

공동주최: 라디오코리아, 한국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우리 생활의 기본인 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절취선

- * 사랑의쌀은 개인신청을 기본으로 신청한 1인에 1포, 한 가정에 최대 2포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한가정 2포일경우 2명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 단체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절취선

- * 신청방법은 1) 신문 및전단지 2) 웹사이트 3)이메일을 쓰실수 있습니다
- 1) 신문 및 전단지: 측면의 신청서에 정보를 기입하시고 남가주교협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5 "사랑의쌀 담당자 앞"
- 2) 웹사이트: http://scalckc.org의 '사랑의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3) 이메일: koreanchurch981@gmail.com로 신청서파일 (.doc)을 보냅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6차 2014 사랑의 길 신청서

이름(name)	
이메일(email)	
연락처(phone)	
주소(Address)	



*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하신 주소로 쿠폰이 메일발송 됩니다) * 문의사항: Tel: 323-735-3000, Fax : 323-735-3111 Website:scalckc.org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GOGENGO CONTROL CONTRO



www.chpress.net

2015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선교동원 인프라 구축과 개혁에 관한 소고

"교회여! 평신도전문인 선교시대를 준비하라"

김정한 선교사 SON Ministry/GMAN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선교, 이대로 주저앉 을 것인가? 선교동원 전문사역을 하면서 2014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며 선교계를 향해 가지게 되 는 질문이다. 우선 결론적인 해답 부터 제시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 고자 한다. 매우 중요한 제안이고 해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 안한다.

2015년부터는 교회들과 선교계 는 첫째, 선교동원구조(인프라)를 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조로 개혁, 둘째, 작은 교회들의 선교동 원 연대운동을 확대, 셋째, 평신도 전문인들의 선교동원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재정이 아니라 교회들 은 사람을 내놓아야 한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시대를 열어가야 한 다는 것이 이 소고를 통해 제시하 고자 하는 해결방안이다. 이 해답 을 전제로 이 글을 시작한다.

한국교회 선교는 교회들의 성장 정체로 인하여 선교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국교회와 한국선교는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이 있다. 교회와 연관없이 선교가 출발하거나 진 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선교의 기본원칙이다.

10년전인 지난 2005년도 MT 2030Project(선교정병 10만 운동) 가 시작되었다. '선교정병 10만 운 동'은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 10 만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는 운동 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도 가 되면 1년에 4천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 후에 계속 상승세 로 선교사를 보내야 목표에 이르 게 되는 도표와 함께 비전이 제시 되었다(미션매거진 2005년 11월

이 계획은 2008년에도 계속되 (새)한 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10만 선교사 파송은 현재 파송되고 있는 선교사 인원 에서 매년 3500명씩 증가해야 달 성 가능하다며 당시의 강승삼 사 무총장은 "이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다"(http://www.kwma.org/ gnuboard4/bbs/board.php?bo_ table=c_press&wr_id=1)라고 평

가를 하였다. 또한 자비량평신도 선교사를

2020년도까지 앞으로 5년 후에는 100만명의 자비량선교를 보내자 는 운동을 MT2020 PROJECT(100 만인 자비량선교사 파송운동)라 하여 2005년 8월 11일 한국세계 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국선교지도자회 의'에서 황성주 박사가 발표한 내 용이다. 이 운동은 '2006년 세계선 교대회'에 채택되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라고 발표를 하 였다(미션매거진 2005년 11월호).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현실화 되 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를 평균. 자료근거 KWMA 홈페 이지). 2030년까지 10만명의 선교 사를 보내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4년 초에 발표된 2013년도에 파송한 선교사수가 26,703명이였 다. 그렇다면 앞으로 15년 동안 73,297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야 하고 이 목표를 수치적으로 달성 하려면 매년 4,886명의 선교사가 나가야 한다는 수치적 계산이 나 온다. 그러나 지난 11년간의 평균 선교사 파송수가 1,414명이였는 데 이 평균 파송수를 유지하고 10 만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 로 51년 8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축하는 것이 선교동원의 개혁에 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

둘째, 작은 교회들의 선교동원 연대운동을 확대하라.

한국교회 성장의 운동 중 자연 발생적인 결과가 대형교회들이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선교의 보 편화를 막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 게 되었다. 선교는 재력 있고 인력 이 있는 교회만 가능하다는 메시 지를 형성하는 결과가 되었다. 성 경의 모델은 교회가 대형화가 되 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초

해지기 시작한다는 선교사들의 목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동안 재정 중심의 선교사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교지에서의 중요한 자원이 재 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가 장 중요한 선교의 자원이 되는 구 조로 바꾸고 사람을 선교자원화 하는 선교동원 패러다임의 개혁 이 있어야 한다. 재정을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당연히 여전히 필요 하다. 재정이 있어야 선교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지 의 사역을 재정중심의 사역구조였 던 과거의 구조를 허물고 사람이

요 동원 대상으로 개혁을 시도해 야 한다.

다섯째, 미주한인교회들의 선 교자원-평신도전문인들을 활용

북미주에 있는 4500여개의 교 회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반적 인 방법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 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협 력선교를 하며 기본적으로 100-200불 정도의 월 선교비를 지원하 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교 회들은 이러한 선교후원마저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 거의 대부분이 다.

평신도전문인들을 파송하면 재 정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본 인이 받게 되는 은퇴 후 연금이던 지 또는 은퇴전이라면 현지에서 자비량 선교를 현지의 선교사들 과 팀이 되어 할 수 있다. 현재 한 인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종류의 수 는 154 종류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신 도전문인들이 평생하고 있는 또 는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선교지 에서 비자와 재정을 해결하면 선 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열 려 있다.

나가는 말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이고 평신 도전문인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교동원에 관한 새로운 개 혁이 있어야 한국교회 선교에 미 래가 있다. 현재 이러한 개혁이 없 으면 한국교회 선교는 답보상태 가 될 것이다. 작은 교회들은 더 이상 재정부족을 이유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사명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이제 작은 교회들이 선교 를 위한 연대를 하며 재정보다는 사람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자원 임을 자각하고 선교동원에서 개 혁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밝아오 는 2015년도에는 이런 선교동원 의 개혁이 미주한인교회들안에 시 작되기를 바란다. 이 일에 하나로 SON Ministry/GMAN은 선교전 문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www.igmanradio.com

온라인 네트웍 통한 선교동원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화 평신도전문인 사역 전환으로 작은 교회들의 선교 가능

그렇다면 어떤 전략수정을 해야 이런 목표를 가능하도록 하여 세 계선교의 마지막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한국교 회들과 전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한인이민교회들의 선교적 도전과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선교, 현재 어디까지 왔는

지금의 한국선교 현황은 어떠한 가? "2013년 12월말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한 조명순선교 사의 조사 자료를 보면 그동안 예 상되었던 한국교회 선교의 성장 이 이제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통 계를 볼 수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 를 하기 위한 목표를 2030년 향후 15년 후에는 선교사를 10만명을 보내기로 하였다. 비전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지난 10년간의 선교계의 현실을 KWMA 통계를 통해 잠시 뒤돌아보고 정직한 평 가를 해보기로 한다.

그동안 KWMA가 발표한 2003 년도-2013년도의 자료를 근거로 자세한 수치를 조사해 보았다. 지 난 11년간 파송선교사의 증가는 연평균 1,414명이였다(2003-2014년까지의 매년 파송선교사의

나온다. 수치적 계산으로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선교목표라는 답 이 나온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선 교사 파송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까?

첫째, 다음세대를 향한 선교동 원의 구조(인프라)의 개혁을 시

현대 21세기의 세계는 가장 큰 흐름이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이다. 이 세계화는 경제적 목 적으로 미국주도의 사회운동이다. 지구촌의 세계화는 기독교의 복 음을 세계 각 곳에 전할 수 있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 다. 그동안 한국선교계의 동원전 략은 전통적 방법이었다. 선교대 회, 교회방문 선교집회와 도전, 학 연, 지연, 인맥을 통한 선교동원, 개인관계를 통한 동원이 지난 30 년간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선교동원 구조를 세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네트웍을 통 한 선교동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 지금까지의 동원인프라는 대 형교회 주도의 선교동원 시스템 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는 작은 교회들이 선교동원에 참 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는 구 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형교회는 재정과 인력이 있어 선교를 자체로 진행 할 수 있기에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대형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선교를 하나의 명 분으로 사용하였다. 선교는 결코 대형교회에서 해야만 더 효율적 이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 각은 잘못이다. 그 논리는 돈 중심 의 논리이다.

초대교회의 작은 교회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선교를 했다. 대형교회의 선교전략은 하나님의 선교전략중 하나일 뿐이다. 선교 역사에는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작은 교 회들이 연대를 하면 대형교회들 이 가질 수 없는 선교전략과 더 많

셋째, 선교자원의 개혁을 시도 하라.

선교자원의 핵심은 사람이다. 지난 30년 한국교회의 성장으로 재정과 물질이 한국교회 선교자 원의 중심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회들로 부터 재정적인 선교후원이 부족

성하는 개혁을 시도하라. 교회는 더 이상 돈 중심의 선교를 진행하 지 말고 사람이 자원인 선교정책 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원이 되는 선교프로젝트를 구

넷째, 선교지 파트너십의 동원 대상 개혁을 시도하라.

선교지에서는 이제부터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선 택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사용하 는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 평신 도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 성은 교회에서 지원하는 재정보 다 더 많은 자비량의 가능성이 있 고 현지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 와 선교사들은 이제 전문사역과 사역의 탁월성, 사역의 재정적 자 비량의 가능성을 보며 평신도전 문인들을 선교의 파트너로 동원 대상을 정해야 한다.

2014년에 일어난 중국과 태국 에서의 선교사 추방의 사태를 보 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여러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사건들이 다. 따라서 선교지에서는 전문성 을 가진 사역을 개발하여 비자문 제를 예방하며 안정적으로 선교 를 하도록 평신도전문인들을 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가미노회에 소속된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아래와같이 청빙코자 합니다

[1) 자 격

- 1.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이거나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본교단의전임승락이가능하신분)
- 2. 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Div이상)
- 3. 목사안수후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사모포함)
- 2.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3. 목회계획서 (성장과정/ 목회비젼/교회운영계획-A4 용지 4매이내)
- 4. 목사재직증명서 및 총회목사 안수증명서 (각 1통)
- 5. 추천서 2매 (연락처기재) 6. 설교 TAPE 또는 CD 2개
- 3) 제출기한 **2015년 1월15일 (우편소인일자기준**)

- 4) 제 출 처
- 1. E-mail: philadelphia9135@gmail.com 2. 우편: 9135 132st , Surrey BC Canada V3V 5P6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604-584-5780)

[5] 기 타

1. 제출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분은 개별통지 합니다 2. 개별통보된분의경우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미 국 \$100 캐나다 \$11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유 립 \$190 남 미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사 □ 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t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t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ny@chpress.net



21세기 선교패러다임: 미완성과업 완수를 위한 교회연합(상)

박신욱 선교사 전 아르헨티나 선교사, 전 미주복음방송 사장 현 SEED International 국제총무이사

저는 1990년 12월, 남미 아르헨 티나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1기 사 역을 섬긴 후에 1997년부터 선교 회 본부사역을 섬겼습니다.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주 에서 선교사 후보가 선교후원비 를 모금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 았습니다. 평균 6개월 정도면 약 20개 이상의 교회와 필요한 만큼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선교지로 떠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선교회 본부에서 선교 사 후보를 위해 후원교회를 소개 해 주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후원할 선교사 연결 을 요청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 교사들이 후원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주보에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상태가 새 로운 선교사를 후원하기가 어려 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선교사 후보들이 쏟아 지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 근에는 특히 나이가 젊은 선교사 후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60세가 넘어 선교회 문을 두드리 는 선교헌신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실버미션의 장점 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아도 선교지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타문 화 적응과 언어습득 능력이 떨어 지므로 후방에서 지원사역만 하 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최전방 개 척선교는 누가 할 것인가, 선교회 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

선교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선교에서 실버미션, 의료선 교, 비즈니스선교 등 다양한 선교 전략이 제시되면서 선교에 동참 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 선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스 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 막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선 교의 자원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 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마지막 과 업 완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 을까요?

A. "홍수에 먹을 물 없 다?": 오늘의 선교 상황 진단

1. 선교사 후보의 감소: 선교자 원의 고갈인가, 포화상태인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교사 후보가 줄어가는 이유의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선교후원비 모금 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경기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교회마다 적 어도 한두 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 교자원이 고갈된 것인지, 더 이상 선교사를 후원할 필요가 없을 만 큼 선교사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 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 3년 공생애 사역이나(마가복음 1:30)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예와 는 전혀 다른 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에 있을까요?

3. 선교사역의 개인주의와 개교 회주의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선교의 인 적 자원이 후방에 치우쳐 있는 원 인을 살펴본다면 선교자원을 투 입할 때 세계 선교 상황을 객관적 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선교회 본부 일을 하면 서 늘 상 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 헌신자가 선교회 문을 노 크할 때는 이미 가기를 원하는 선

한 세 가지 시스템

1. 선교단체 선교의 재정비

a. 선교단체의 존재 목적

선교단체는 소달리티로서 선교 전문단체로서의 존재목적이 분명 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달리티로 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자 원을 세계선교를 위해 균형 있고 충분하게 동원하여 선교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선교단체가 섬겨야

지역교회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혹은 비전략적인 차원에서 선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선교단체는 "선 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미개

적응 과정을 거쳐 선교지에 보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자 원의 낭비를 보는 것은 불보듯 뻔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준 비된 선교사 후보를 키워내야 하 는 반면에, 선교단체는 철저한 후 보 허입과정과 지속적인 선교사 재교육과정을 통해 선교사 자질 을 높여야 합니다.

c. 팀사역

선교단체의 가장 큰 도전은 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각자 모금한 선교비를 사용하면 서 선교지에서 팀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 로 선교사 개인이 모든 선교 프로 젝트를 고안해 내고 모금을 하고

교단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단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 장하는 세계선교의 도구라는 정 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교단 자체의 비전 이라기보다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할 때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 단이 소속교회의 행정과 치리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 로 교육, 신학연구, 선교 등의 사 역 실행기능이 있다면, 세계선교 야말로 교단의 존재 목적의 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교단선교부의 전문화

교단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단의 미션보드가 전문적인 소 달리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 단 선교본부의 상설화와 전문인 력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국의 교단들은 이미 총회산하 선 교회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선교 사 동원, 훈련, 파송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주의 교 단선교는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 제는 미주의 교단들도 좀 더 전문 적인 상설 교단선교부를 조직하 고 운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

c. 소속교회의 연합선교

교단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개교회선교'에서 '교단선교'라 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 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선 교는 독립선교기관의 사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개인 적으로 모금하고 사역하기는 일 반입니다. 소속교회들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선교합니다. 교단선교 본부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선교 단체와 같이 소달리티로서 전문 적인 사역으로 재정비해야 할 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자원의 집중과 미개척지역 확장이라는 선교의 목적을 이루 기 위해서는 미국의 C&MA 교단 이나 남침례교단과 같이 선교의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연합선교 패 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새사람교회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주일학교 : 오전 10:30

선교단체는 미개척/미전도 지역 개척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교단선교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이상적 선교모델

2.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후방선교: 선교목적의 성취인가, 무지인가?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은 후방에 배치되어 있 으며 미개척지역으로 가는 선교 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 령께서는 바울의 선교사역을 계 속해서 미개척지역으로 인도하셨 습니다. 약 10년간 3차에 걸친 선 교사역을 마칠 즈음에는 예루살 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 며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 방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

했습니다(롬15:19).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받지 못 한 곳에 복음을 전하여 재생산하 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왜 교 회는 여전히 선교사를 후방으로 보내고, 또 많은 선교사는 후방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가 파송한 선교사만 하더라도 3만 명에 가까운데, 미전도종족은 여 전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교지와 자신이 하려는 선교사역 을 결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가 이미 후방에 있는 선교사 와 커넥션이 되어 헌신합니다. 또 선교의 전문 지식이 없는 교회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가는 선 교사 개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역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조심 스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만일 교회 리더쉽이 전략적인 선교의 방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에 적극적인 경우에 교회의 선교자원이 역시 한 곳으로 치우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프런 티어 선교에 힘을 쏟으며 균형있 는 선교를 하는 지역교회들도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 선교가 빚 고 있는 선교자원 투입의 불균형 이 오늘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 다고 생각합니다.

B. 현 선교 상황 개선을 위

척/미전도 지역을 개척하여 교회 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가이 드해야 합니다.

b. 선교사의 자질

선교사 후보 개인이나 파송교회 의 의사에 따라 후방으로 선교사 를 파송하는 무분별한 선교지 선 정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 분별한 선교사 허입과 파송이라 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자격이 없 는 목회자 안수와 교회개척 난립 의 문제가 있다면, 선교지에도 같 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선교사 후보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선교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영성과 사역 훈련은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합 니다. 단기간일 수 밖에 없는 선교 단체의 훈련과정을 통해 선교사 의 영성과 성품, 나아가서 선교지 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능한 사역자로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 능한 일입니다. 선교단체는 영성 과 사역에서 이미 준비가 된 후보 를 허입하여 언어훈련과 타문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는 것 이 현실입니다.

선교단체가 선교지의 프로젝트 를 한 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선교단체가 선교 단체 차원에서 동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 교단선교의 활성화

교단선교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 경적인 선교시스템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 본부가 소달리 티의 기능을 가지고 전략적인 선 교방향으로 모든 소속교회가 연 합하여 선교하도록 섬길 수 있다 면 엄청난 선교자원이 동원되고, 또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렇게 볼 때,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가장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상적인 선교의 모델이 교단선교라고 볼 수 있습 니다.

a. 교단적인 선교비전과 방향

뉴욕새벽별장로교회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리빙스톤교회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에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정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창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금요찬야예배: 오후 8:45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일2부에매: 오전 50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 주일스피니 이제 8:00의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에벤에셀선교교회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중부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50(원-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좋은목자교회



Tel.(516)584-4088, www.jounmokch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11746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저지성도교회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내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담임목사: 김신영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베바: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담임목사: 김성국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l 96822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AV. CÁ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하와이

수요기도회: 저녁 9: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주,고등부에배: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담임목사: 왕익상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및 북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416)490-9060

토론토 가든교회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담임목사: 정관일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Tel.(595)21-574-985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하와이 행복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담임목사: 이남수



www.chpress.net

21세기 세계선교의 동향과 목회적 대응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교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14년이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 2015년을 주셨다. 새해에 생각해 보는 세계선교는 마음에 부담이 된다. 왕성하게 자라나던 한국의 교회들이 급성장을 멈추고 정체 적인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들이 막혀 지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물론 한국 기독교의 침체가 왔다고는 보지 않지만 기독교가 가졌던 사회적 영향력이 손상을 입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 리면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기독교가 약해지는 지역들이 있 고, 또한 과거의 꽃을 피웠던 유럽 교회의 급격한 쇠퇴는 정말 마음 이 아프다. 하지만 성령의 함께하 심으로 활달한 부흥의 역사가 일 어나는 지역도 많이 있음을 알 수

21세기의 세계의 동향은 무엇 인가?

종교적 상황은 세계적의 전통 적인 종교들의 약진이다. 이슬람 교, 힌두교, 불교들도 세계적인 종 교화가 되고 있다. 이슬람의 급진 적이고 폭력적인 포교는 눈에 거 슬린다. 힌두교의 약진도 눈에 띄 인다. 이제는 세계화된 종교들과 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 다. 인구의 분포로 세계종교를 보 면 기독교가 33%, 무슬림이 21%, 힌두교가 13%, 무종교가 12%, 중 국 전통신앙이 6%, 불교가 6% 등 이다. 또한 지역적 분포를 보면 기 독교는 북미와 남미, 유럽과 남아 프리카와 오스트렐리아 등에 퍼 져 있다. 무슬림은 서부아시아, 중 동과 북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 다. 아프리카에서는 무슬림들의 폭력적인 남진을 적도의 선교사 와 성도들이 힘겹게 막아내고 있

세계의 사회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뚜렷하다. 중국의 약진은 분명하다. 제2의 경제대국 이 되었고, 전세계에 4천만명이 넘은 중국인들이 흩어져 있다. 지 금은 중국본토 내의 수천만의 기 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적절 히 활용된다면 중국은 세계선교

를 위한 가공할만한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권이 경 제의 새로운 센터로 부상하는 것 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인도의 변화도 주시해야 한다. 중국 다음 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복음 증거 의 거대한 장이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선교와 관계된 변화는 무엇인가?

첫째, 선교학이 바뀌고 있다. 이 태웅 박사는 북미지역은 실제적 인 전략을 세우는 데 초점을, 유럽 지역은 선교이론에 초점을 맞추 었다고 설명한다. 현재까지 북미 지역의 선교학이 주도를 했는데

을 수용하는 변화이다. 전통적인 선교사역에서 보다 다양하고 창 의적인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자 비량 선교, 평신도 선교, 비거주 전도 등의 방법들이 시도된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선교의 특 징은 무엇인가? Patrick Dixon의 글 "Global Trends, People Movements, and Their Impact" 에서 선교의 미래를 futures/미래 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의한다. (1) F: Fast (2)U: Urban 도시화 (3) T: Tribal 종족화 (4)U: Universal (5)R: Radical 급진적 (6)E: Ethical 도덕적 (7)S: Spiritual 영

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도시로 이동현상은 선교전 략의 변화를 요청한다. 새로운 선 교전략들이 초대형 도시에 필요 하게 될 것이다.

셋째, T: Tribal 종족주의는 지 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인 간의 힘이다. 각 가정과 공동체는 종족적이다. 사람들은 소속해야 할 공동체가 필요로 한다. 반면에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들이 걱정 할만한 수준으로 파괴되어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가정의 파괴 는 거대한 감정적인 공백을 만들 어 낸다. 종족주의는 불관용, 파벌 주의, 극단의 민족주의, 아니 더

으로 더 극화 현상을 나타낸다. 극 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한다. 여기에 과격한 선교정 책으로 맞대응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선교지에서의 기독교인 들과 무슬림들 사이의 긴장은 많 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뉴스의 헤 드라인을 장식한다.

여섯째, E: Ethical 도덕적인 위 기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가 치와 도덕에 대한 질문은 위기와 스캔들이 생길 때마다 나타난다. 도덕적 타락은 신앙의 거대한 기 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성 경의 가치관은 인정하고 존중한

교의 경향들이 있다.

첫째, 재난과 위기를 통한 선교 의 기회이다. 세계 곳곳에 극심한 재난들이 임하고 있다. 이것은 매 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갈수록 더 광폭한 재난의 소용돌이가 세상에 오지만 하니 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다. 재난 지역에 기독교 선교단체 들의 구호 작업도 일어난다. 반대 로 중동 같은 곳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사람들의 이주가 오랫동인 반목하던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 할을 한다고 한다. 무슬림들도 IS 의 극단적인 잔악성을 보면서 지 금까지 절대적으로 맹종했던 지 신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졌던 무조건 집착을 느슨하게 하는 결 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 수의 복음을 받아드리는 수용력 의 증가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 된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전염 병의 창궐 속에서 선교단체들의 희생적인 섬김은 사람들이 하니 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지 고 왔다.

둘째, 중국교회의 폭발적인 부 흥이다. 중국교회의 부흥은 더 이 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중국 의 교회들은 계속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내 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등록된 공 산당원 8천7백만명 보다 능가했 다고 한다. 현재의 성장을 계속히 면 2030년까지 2억5천만명이 기 독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 제1의 기독 교인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세계최대의 무신론 정부 중국 공산당이 지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셋째, 세계화와 비즈니스의 선 도이다. 사람들이 이주현상에 대 한 최신의 연구들은 바로 옆에 있 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성을 보여 준다. 세계화의 결과로 외국의 시장이 커지면서 또한 국제 경제가 겹치면서 성도 들이 세계적인 취업의 기회가 증 가되어 왔다.

21세기 선교의 특징: Fast Urban Tribal Universal Radical Ethical Spiritual 건강한 지역교회와 세계선교의 다양한 협력, 사역의 전문화와 실버선교사 활용

주로 문화인류학과 같은 사회과 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몰 두해왔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 화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들 이 일어났다. 복음주의 선교는 선 교의 개념을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복 음전도에 초점을 맞춤으로 사회 적인 책임을 복음전파의 수단과 결과로 간주했다. 복음주의는 세 계복음화에 집중하고 있다. 에큐 메니칼 진영은 선교의 과업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이 론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라는 말로 요약할 수

둘째로, 선교전략의 변화를 가 지고 왔다. 지금까지 현대선교의 전략의 주도권을 북미교회가 가 지고 있었다. 지금은 2/3 세계에 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소리를 내 고 있다. 선교지의 변화도 일어났 다. 어디에 선교사들과 자원들을 집중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재 배치가 일어나고 있다. 서구선교 사가 주도하던 전략에서 이제는 2/3 세계 선교사들과의 파트너십

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서 사람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두 려워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나 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융통 성을 가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세계화의 변화는 세계경제 의 4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 어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도의 변화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급변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망도 또한 증 가될 것이고 이는 선교의 기회가

둘째, 도시화 현상은 앞으로의 세계선교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10억명 이 어린이들이 있다. 2030년까지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50세 이 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7억 5천만명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 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초대형 도시의 변두리에서 조그만 땅에 서 슬럼을 형성하면서 살게 된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이

사악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 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 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넷째, U: Universalism 혹은 세 계화는 종족주의의 반대이다. 가 는 곳마다 맥도날드가 있고, 같은 노래가 세계적으로 불려진다. 이 런 현상의 문제는 특별한 지역 문 화나, 정체성이나, 지역의 역사가 급격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세 계화는 멈출 수 없는 강력할 힘으 로 일어난다. 또한 종족주의와 세 계화의 공존하는 현상이 일어나 고 있다. 세계화로 세상은 점점 더 지구촌처럼 작아지고, 세계의 나 라들은 블록을 형성하여 서로 견 제하고 있다. 세계화가 많이 일어 날수록 또한 종족주의도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세계화가 일어나 는 힘은 바로 인터넷이다. 이미 세 계의 70%의 사람들이 빛의 속도 를 가지고 교신하는 wireless 기 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또한 새 로운 선교의 현장이다.

다섯째, R: Radical 급진적이다. 우리의 세계는 정치적으로 영적

예를 들면, 정직, 근면, 이웃을 돌봄, 모범적 시민이 되는 것 등이 다. 도덕적인 이슈들의 가장 큰 질 문은 생명과학과 관계되어서 일 어나고 있다. 생명을 연장하는가 아니면 단축시키는가? 새로운 인 종을 인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태 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조직을 치 료에 사용할 것인가? 등 끝이 없 다. 또 다른 도전은 성의 타락이 다. 성문화의 급속한 타락으로 인 한 사회적인 타락이 전세계적으 로 목도되고 있다.

일곱째, S: Spiritual 영적인 갈 망으로 가득 차 있다. 가짜 영성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진정한 신앙과 경건의 의미들 주 구하는 갈망 역시 증가되고 있다. 서구 주도의 신학과 교회가 이제 는 판도를 달리하고 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변화는 기 독교가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지의 이동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세계선

〈12면으로 계속〉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월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3일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겸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월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5일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LA 평화교회(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싱 샘터교회(고영수목사)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5일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19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연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TEDED TEDED TEDED TEDES



The Korean Christian Press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모든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 과 같다. 때로는 강한 소리를 내며 때로는 미약한 소리와 함께 역사 는 계속 흐른다. 창조 이래 단 한 순간도 정지되었던 적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이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서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를 제대로 알기위해 노력하는 이 유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흐르 는 역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 사 건이 지닌 독특한 의미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역사는 재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마치 흘러온 물이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 특 정한 시간과 상황에서 벌어진 일 이 똑같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 단 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뿐이다. 로마와 같이 절대적인 힘을 지닌 강대국이 출현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세계를 지배하지만 영원하 지 않다.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하 면서 세계는 새로운 힘의 구도를 취하게 된다. 유사한 패턴이 반복 되어도 이전의 사건과 근본적으 로 다른 강조점을 보이게 된다. 역 사가 처해있는 시대의 환경이 언 제나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 과거가 되어버린 사 건을 재구성하는 수고를 포함한 다. 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 보는 눈은 다양하다. 그 사건을 바 라보는 사람이 지닌 가치와 판단 의 기준에 의해서 이해되고 해석 된다. 사건 자체보다 훨씬 많이 부 풀려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 다. 자신의 눈과 귀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한 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 다. 결국 사건을 재구성하는 역사 가의 수고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은, 주어진 정보의 객관성 여부이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담아둘 수가 없다. 단지 지난 세월 동안 기록된 문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 문서 들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고 교훈

을 얻는다. 이 문서는 나름대로 객 관성을 지니고 있다. 기록된 역사 로 남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 건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와 의견 이 종합되어진 것이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역사는 강한 사 람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말이 있 다. 세속 역사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는 해석 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포함하여 활자화된 모든 역사적 기록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 다는 것이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 종교적 결단이나 염원을 담은 창 작품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 에게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 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우 리가 이해하는 활자로 기록되었 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 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 님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될 수 없 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에 맞추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의 선물이다.

성경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과거 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를 향하여 흐르고 있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생활,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시대, 나아 가서 왕정시대와 포로생활, 그리 고 나라의 회복과 암흑기를 포함 한 모든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견한 것이 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시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 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

신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 으로 흘렀다. 복음서는 그리스도

사의 흐름을 막으려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다. 뚝을 쌓아 강의 흐 름을 막으려는 고약한 사람들의 노력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 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 려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중 단 없이 흘렀다. 지난 2000년 동 안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오늘 까지 흐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 금도 구원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다. 성경은 주후 100년까지의 역 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지만, 향

스도가 중심된 복음이 세상에 어 떤 모습으로 확장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통 교회역사를 크게 다섯으로 구분한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 교개혁시대, 근대교회, 그리고 현 대교회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줄기로 흐르는 역사이다. 그러 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시대 마다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매우 달 랐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을 향해 교회 역사의 물은 흐 르고 있다. 예수의 재림이다.

초대교회(1세기-6세기 말)는 핍박과 혼동에서 출발하여 교회 가 견고해진 모습을 발견한다. 중 세교회(6세기 말, 16세기 초)는 교 회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 속에서 도 유유히 흘렀다.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초-17세기 중)는 성경적 으로 교회로의 개혁된 모습을 추 구하며 새롭게 흘렀다. 근대교회 (17세기 중-19세기말)는 자아중 심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을 거부 하면서 힘차게 흘러왔다. 현대교 회(19세기 말 이후)는 복음의 본 질을 왜곡 시키는 도전 속에서도 꾸준히 흘러왔다.

흐르는 교회 역사를 통해 접하 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역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 하 나님의 구원역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교회 역사 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 신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 게 해준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즉 십자가의 복 음이 지닌 파워를 접하게 된다.

이 시대의 교회가 표류하고 있 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 다. 함께 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 을 가지기를 원한다. 살아계신 하 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그 분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

교회 역사의 내부를 보면 성경말씀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역사 보여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고 그 중심엔 그리스도 있어

시었다.

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면, 먼저 그 교훈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사 실 여부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역사의 횡포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거룩한 부담을 지 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 여 모든 역사를 의심의 눈으로 바 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역 사에 대한 분명한 눈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경도 흐르는 역사에 대해 말 한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글이다. 성 경은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는 창 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 에 성경은 창조된 역사가 어떤 모 습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뿐 아 니다. 창조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역사를 중 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성경은 소 설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 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니 다.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성 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 해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 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 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들을 선택하시고 품으셨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을 세워놓으시고, 자신의 계획대 로 역사를 이끌어오셨다. 하나님 께서 이끄시는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간과 오신 후의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에 계 시다는 것이다.

모든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흘렀다. 마치 산에 있는 실 개천이 강을 항하여 흐르듯,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작고 커다란 역 사적인 일들은 인류를 위해 대속 께서 약속대로 오시어 구원을 완 성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자명하 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과 연 누구이며, 왜 그 분이 십자가에 서 죽으셔야 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 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고 적 용되는 현장을 접하게 된다.

구원 역사 안에는 생명이 흐르 고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의 생명이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파워를 접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 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접 하면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 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서 반 복되는 일반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복음의 진보가 있는 곳에는 반 드시 방해물이 있다. 거의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었다. 성경의 역사는 1세기 이 후 초대교회의 역사로 이어진 것

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

교회 역사는 흐르는 물이다

교회의 역사는 흐르는 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 님께서 흘리시는 물이다. 교회의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른 점이 무 엇일까?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문서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 심으로 진행된 역사이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1세기 이후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 사의 중심으로 삼기위해 노력한 흔적을 접하게 된다. 교회 역사는 성경의 시대가 끝난 이후를 담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리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 사를 어떻게 소화하였는지에 대 해서, 특별히 복음의 진보를 가로 막는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그리

〈계속〉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타코마 삼일교회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벧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타코마새생명교회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A) (F

보스턴장로교회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영생장로교회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서박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원토위망하: 오전 104, [현하]: 오전 114 유치, 유년드부: 오전 10:00

담임목사: 이용걸

주임1부예배: 오전 7:30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담임목사: 윤정용

갈보리장로교회

샬롯장로교회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온누리교회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에배: 오전 11:00 주일 2부에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답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1두에때: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 www.kucp.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 www.josephsvision2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몽고메리교회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알칸사 제자들교회

주일오전에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弘 (63)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아브라함 카아퍼의 평가와 결론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세계관이 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어 떤 입장, 어떤 전제를 갖고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모든 삶을 보는가 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유물주 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을 유물주의 세계관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인 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사고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전 분 야에 인본주의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세계관이 있는데 성경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과 주권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중 심의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런 성 경적 세계관은 모든 진화론적 유물 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잠재 우고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 로 이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독 교 세계관의 틀을 놓고 그것을 진 두지휘하고 사상적 체계를 놓은 분 이 바로 위대한 칼빈주의자 아브라 함 카이퍼 박사이다. 그러므로 기 독교 세계관은 달리 말해서 칼빈주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말하는 세계 관으로서의 칼빈주의는 어떤 것 인가? 카이퍼는 그의 모든 글에 서 칼빈의 진실한 후계자로서 또 는 칼빈사상의 부흥가로서 자처했 다. 하지만 화란의 신학자 힐케마 (C.E.Hylkema)같은 이는 카이퍼를 신칼빈주의자(Neo-Calvinism)로 칭했다. 그러면 카이퍼의 칼빈주의 를 신칼빈주의(Neo-Calvinism)로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 유는 카이퍼는 칼빈을 그의 멘토로 서 철저히 따르며 그의 교리체계를 따른다. 하지만 카이퍼는 단순히 칼 빈의 복사판(A Copyist of Calvin) 이 아니고 칼빈의 사상체계 전부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 고 구체화 시켰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 의 사상 체계를 칼빈주의라고 하 고 카이퍼의 사상을 신칼빈주의라 고 하나 그 둘 사이에 있어서 근본 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다만 칼빈 이 일반은총에 대한 원리적인 것만 언급한데 비해서 카이퍼는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세심하게 다듬어 서 기독교 세계관이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교육, 학문, 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 로 카이퍼의 사상은 카이퍼 자신이 쓴 그대로 '칼빈주의'라고 쓰는 것 이 옳다.

카이퍼가 칼빈주의를 말할 때 기독교 세계관과 나란히 쓰고 있 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세계관 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데, 첫째로 세계관이 되려면, 세계 관은 전 포괄적으로 모든 실제(Inclusive of all-embracing view of realities)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은 하나님, 인 간,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남산

장을 갖고 있다. 카이퍼는 그의 명 저 신학백과 사전학(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에서 두 종류의 인간과 두 종류의 학문(Tweeerlei Wetenschap)이 있다고 했다.

카이퍼의 주장을 개요하면 이렇 다.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마음 또 는 의식의 내용이 원리적으로 서 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대립(Antithesis)은 신 앙과 이성의 대립이 아니고, 중생 자와 비중생자의 자기의식의 대립 이며,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것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자기의 식의 내용은 '죄의식', '신앙의 확 신', '성령의 증거'임에 반해서, 하 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중생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 장하는 것이라면, 결국 학문적 사 색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 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놓이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부오식

결국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세운 이유도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학 문의 영역에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역사를 바꾸고, 시스템(System)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 건설 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평가와 결론

필자는 여기서 카이퍼 연구를 마 감하려고 한다. 카이퍼 박사는 스 피노자 이후에 가장 잘 알려진 화 란 사람 중의 한분이다. 카이퍼는 확실히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계 승자였으며, 칼빈주의 운동의 선 구자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고 본다. 카이퍼를 논할 때 누구든 지 한 가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 다. 즉 카이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거나, 카이퍼에 대해서 반대의견 을 갖던지 둘 중의 하나이다. 카이 퍼의 신앙노선과 정치노선을 반대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부터 한 세기 전에 화란의 교회, 사회, 정치 구조 에 남겨 놓은 깊은 흔적을 인식하 지 않고는 화란을 이해할 수 없다 장이 아니다. 이 신학 포럼은 개혁 주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국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사상과 삶에 미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평 가하고자 했다.

1872년 4월1일은 아브라함 카이 퍼의 생애와 화란 개혁교회에 있어 서 역사적인 날이었다. 카이퍼는 그날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일간지 De Stardaard의 창간호에서 정확 히 300년 전 화란종교개혁에서처 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민족 의 삶 속에서 다시금 세워지고 있 다고 기록했다. 카이퍼는 옳았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중생 으로 개종을 한 후에 국가, 사회, 학 문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여러 가지 탈을 쓴 인본주의가 교회는 물론이고 삶의 전반에 걸쳐 서 침투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역시 삶의 전 영역에 하나 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카이 퍼의 주장은 옳다.

카이퍼는 16세기 종교개혁은 당 시의 불란서혁명, 계몽주의사상과 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자 신의 입장을 기독교 역사적이며 반 혁명적이라고 표현했다. 카이퍼는 세속적 인본주의와 대결하기 위해

음적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 중의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

카이퍼를 평할 때마다 모든 사람 들은 그의 천재성에 늘 놀라고 있 다. 그는 모든 면에 천재였다. 어떻 게 한 사람에게 그토록 다양한 천 재적인 것을 주었을까 싶을 정도 로 그는 다방면의 천부적이었다. 거기다가 그는 열정, 리더십, 조직 력, 통솔력, 전략까지 고루고루 갖 춘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펠돈 신 학대학(Apeldoorn Theologische Universiteit)의 교의학 교수 벨레 마(W.H.Velema) 박사는 카이퍼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평 생 연구했다. 그는 비판하기를 카 이퍼는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의 영 적 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말씀 을 배제시키는 듯 한 인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카이퍼를 비판하면 서, 개혁주의신학을 전개하면서 이 상주의적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 러면서 벨레마 교수는 카이퍼는 확 실히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그리 스도의 화해의 사역과 성령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카이퍼의 작품에는 오늘날의 영 성(靈性)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충 만했다고 했다. 또 카이퍼는 대조 (Antithesis)의 인물이었다. 문화적 소명, 과학, 대학, 그리고 정치면에 서 그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 이고자 했다. 카이퍼는 교인들을 그의 신학으로 훈련시킨 다음, 그 의 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들을 세상 속 으로 파송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반은총론은 그 근거로 제공했으 며, 특별은총은 하나님의 백성 속 에서 말씀과 별도로 작용하는 내적 추진력이라고 했다. 평생 카이퍼를 비판했던 벨레마 교수는 다음과 같 이 결론했다.

"30년 전에 카이퍼가 세운 대학 에서 그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비평 적인 태도로 카이퍼에 대한 논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그의 추종자들 과 반대로, 카이퍼의 작품 속에 나 타난 어느 정도의 이상주의적 요소 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을 변호 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나는 카이퍼의 이상주의적 요소를 복음의 '상황화'의 매력적 인 부분으로 본다"고 했다.

과연 카이퍼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위대한 대 칼빈주의 학자이 다. 필자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 나치게 신앙이 내면화되고 자기 자 신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창조 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 님의 왕권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는 1세기 전 아브라함 카이퍼가 던 진 영역주권 사상과 삶의 전 영역 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던 그 용기와 확신 그 리고 그의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부흥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끝〉

통일된 시각에서 기독교 세계관 형성...삶으로 전도 영역주권 사상 및 칼빈주의 신학과 사상 부흥시켜야

꼭대기에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하나의 안목으로 보듯이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의 시각 으로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인 것에서 세상의 구체적인 구 조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각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관은 그 판단 기준과 잦대가 처음과 나중이 꼭 같아야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을 판 단하거나 설명할 때 통일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이런 잣대로, 저런 것은 저런 원리 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세계관 일수 가 없을 것이다. 칼빈주의적 세계 관이란 한 마디로 하나님을 만유와 만사의 근원으로, 그는 창조주이시 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란 확고한 하나님중심 사상으로 인생과 역사 와 우주와 사회를 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 세계관은 유물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 관과는 충돌이 일어 날수 밖에 없 다. 그것을 카이퍼는 대립의 원리 (Antithesis)라고 했다. 즉 중생자 가 가지는 세계관과 비중생자가 가 지고 있는 세계관 사이는 어쩔 수 없는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다.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근본 적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 기 때문에 그 둘은 사물을 인식하 고 판단하는데도 서로 반대되는 입

의 마음은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롬1:21), '굳어진 마음'(엡4:8)이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세계관으로 나 누어지게 되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 가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 미 치게 되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카이퍼는 두 종 류의 인간, 두 종류의 자기 인식으 로부터 일어나는 두 종류의 과학론 을 주장했다. 그러니 꼭 같은 교육, 꼭 같은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하 는 두 과학자가 있다 해도, 한 사람 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을 믿고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긴 다면, 그 두 사람의 연구 방향과 목 적이 달라질 것이다. 또 그런 판단 에서 나온 논리적 결론도 그가 가 진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는 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유물주 의적 세계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카이퍼는 독자적으로 개혁주의 원리(Gereformeerde Beginsel)에 입각한 학문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히 학문으로 보 거나 과학으로는 생각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실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 본래 창조의 목적을 위해 봉사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교개혁이

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카이퍼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고 매한 칼빈주의적인 정치가였다. 그 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서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을 뿐 아니 라 그의 영향력은 각계각층에 미 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 또한 카 이퍼는 교회의 개혁자였다. 그래 서 1886년에 국가교회를 개혁해서 화란 개혁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저널리스트요, 문필가였 다. 그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글과 많은 책을 썼다. 그의 글과 그 의 책은 흔들리는 교회, 방황하는 대중들에게 갈 길을 제시한 이정표 이기도 했고, 그의 적수들이 말했 던 것처럼 그는 냉랭한 가슴에 불 을 지른 사람이었다.

사실 그동안 카이퍼에 대한 연구 는 화란, 캐나다, 미국, 남아공화국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신학포럼지(Theological Forum) 의 한 기고자는 "아브라함 카이퍼 의 전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제 정하신 규범적 원리에 따라, 복음 의 능력으로 사회 전반을 개혁하 는 문화적 참여와, 삶의 전 영역에 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양자 모두를 동시에 요구하는바, '세상 속에서 의 삶의 영향'이라는 오늘날의 중 요한 기독교적 견해는 존재하지 않 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과 도 했다. 카이퍼는 "복음이냐 혁명 이냐"라는 물음에 오직 "복음"만이 문제해결의 열매라는 것을 힘 있게 주장했다.

서 문서운동을 전개하고 정권창출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가로 살았 다. 첫째, 카이퍼는 반혁명당을 조 직하고 지도함으로서 그 나라의 다 원적 정치제도를 강화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대 인본주의라는 기본 적인 정치적 대조를 야기 시켰다. 둘째, 카이퍼는 수상으로서 의회를 통해서 사립학교법, 철도 노동쟁의 법, 반 철도 파업법, 사회의 윤리 도 덕적인 고양의 법을 만들었다. 셋 째, 카이퍼는 주간지와 일간지를 통해서 또는 "Ons Program", "Pro. Rege", "Gemenee Gratie"을 통해 서 이른바 기독교 문화에 대한 대 중적 신학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일 생동안 대적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 었다. 그는 워낙 해박한 논리와 신 학지식, 그리고 신학의 논설, 설교 와 강연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힘을 모았다.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테러를 계획할 정도로 미움의 대상 이었고 부정적인 입장에 선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보기도 하고. 그의 중요한 사상전개에 있어서 정 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16세기 종교개혁이후 복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명어예배: 오전 11:00 대학명어예배: 오전 11:00 대학명어예배: 오전 1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1부에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3부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도: 오전 5:30

새 벽 기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

닦임목사 : 김바울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동문교회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i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베델한인교회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안디옥장로교회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토렌스조은교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사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동양선교교회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에 등 모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얼바인침례교회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EM,대학부: 오후 1:5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 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모요예배: 저녁 8: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드 림 교 회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교: 오전11:00 수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세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정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l도:오전 5:30(월-금), 6:00(토

남가주리디머교회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미주양곡교회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새찬양교회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714)826-0100, Cell.(714)9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대학형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미주평안교회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명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세벽기도회: 오전 6:00(월 - 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주님의영광교회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 오후 7:30 금요예배 :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주입 부예배: 오전 8:00 주입 부예배: 오전 10:00(정병, 80 주입 수 명해: 오전 11:30 주입 수 명해: 오후 2:00(EM) 주입 수 명해: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가 201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 한다.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 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은 2015년 1월 23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24일(토) 오전 11시, 면접은 오후 2시에 있다. 한편 동 신학교 개강 부흥회가 1월 26 일(월)부터 28일(수)까지 매 저녁 8시에 열린다.

▲문의:(718)463-7163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2015년 신년 감사예 배 및 하례만찬이 2015년 1월 12일(월) 저녁 7시 퀸즈한인교회 (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일인당 50달러 참가비와 후원 금을 받는다. 뉴욕교협은 행사준비를 위해 교회별 예약을 바라 고 있다.

▲문의:(718)279-1414

담임목사 청빙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헤브론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 속)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대학과 본 교단 인정 신 학대학원을 졸업하고(M. Div이상) 본 교단소속 혹은 가입하실 수 있는 이중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부목사 5년이상 풀타임 목회 경험자. 본인이력서 및 사모이력서, 신앙고백과 목회철학서, 자 기 소개서, 최종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추 천서 2부(목회자 2명), 최근 6개월내 설교 2회분, 본인 및 가족사 진 1매 등이 필요하다(문서는 Word Doc). 서류제출 마감은 2015 년 1월 31일.

▲이메일: hebronpnc@gmail.com.



뉴욕전도협의회 송년감사예배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전도협 2014년 송년감사예배

회원가족잔치 함께 열고 윷놀이 경품 즐겨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 사) 2014년 송년감사예배 및 회원 가족잔치가 지난 29일 저녁 선한 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종명 목사 의 인도로 기도 김태욱 목사, 찬양 전도협의회중창단, 설교 증경회장 김수태 목사("그리스도가 천국이 다", 마4:17-20), 특송 지인식 목

사가정, 축사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 회장인사 및 선물증정 허윤 준 목사, 축도 고문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만찬 및 친교는 증경회장 김 영환 목사의 만찬기도 후 허윤준 목사가 내빈을 소개했으며 가족대 항 윷놀이 대회를 갖고 경품잔치 를 벌였다.

〈유원정 기자〉

뉴욕일원 한인교회 성탄절 나눔행사 만발

성탄절 시즌을 맞아 각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나눔행사를 벌였다. 뉴욕 일원의 각 교회들은 성탄예배를 드리고 선교회나 봉사단체를 찾아 예수 탄생의 기쁨을 이웃 사랑의 나눔으로 표현했다.



뉴욕나눔의집 성탄만찬 예배에서 로즐린한인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뉴욕참사랑교회'예산1% 나눔운동'전달식



뉴욕병원선교회 한국요양원 방문



뉴욕제일교회, 주님의식탁선교회 방문 성탄행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통해 채운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4년 송년감사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2014년 송년감사예 배가 새 이사장 김승희 목사(뉴욕 초대교회 담임)를 맞아 지난 29일 플러싱 탕 식당에서 열렸다.

예배는 부회장 유상열 목사의 인도로 기도 권캐더린 회계, 설교 김수태 자문위원, 인사 전희수 회 장, 김승희 이사장, 조직발표 김영 환 사무총장, 감사패 증정(전임 박 진하 회장에게), 광고 박이스라엘 서기, 축도 박진하 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찬기도는 김인한 상임 자문이 맡았다.

김수태 목사는 "너희가 먹을 것 을 주어라"(눅9:10-17)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 시는 것이며 우리의 야망이 아니 다.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다 른 사람을 채우는 것이다. 비전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기아대책은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채우시고 잘 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뉴욕교계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기아대책은 정치적이거나 친교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떡과 복음을 가지 고 지구촌 굶주린 지역에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라 며, 2015년에는 주 사역인 아동후 원 외에 페루 방문과 집짓기, 후원 자 초청의 밤 등의 계획을 소개했 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승희 목사 는 "이사장은 회장단을 뒤에서 돕 는 것"이라며, "이사장으로서의 역 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열 리며 2015년 1월 모임은 29일 오 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리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 집 '나눔 성탄 만찬'

노숙인쉼터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성탄을 맞아 지난 23일 노숙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내의, 장갑, 모자 등 겨울용품 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성원 목사는 "내년에는 단독 주택에 쉼터를 마련해 숙소를 제 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노숙 인을 영적으로 구제하고, 70세 이 상 서류미비자를 돕는 일도 계속 해 갈 것"이라고 2015년 비전을 밝

이날 예배 설교를 맡은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담임)는 "떡집, 신장개업합니다"(눅2:1-7)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고아원을 뛰쳐나와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의 청소년 시 절을 회상하며, "베들레헴은 히브 리어로 '떡집'인데, 하늘의 영광이 가장 보잘 것 없는 베들레헴 마구

간 구유에 아기예수로 오셨다. 지 금 교회들은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 의 영광을 쫓고 있다. 갈 곳 없고,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에게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떡집'을 다시 개 업하고, 오늘 나눔의 집에서부터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김수경 목사 사회로 로즐린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 김 사무엘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 최 재복 장로, 조원태 목사(뉴욕우리 교회)의 설교, 이종명 목사와 이계 훈 장로의 축사, 박성원 목사의 인 사 및 광고, 황경일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만찬은 김영환 목사의 만찬 기도 후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

〈유원정 기자〉

뉴욕참사랑교회 '예산1% 나눔운동'전달식

뉴욕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 사)가 지난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 리고 '이웃초청 및 예산 1% 나눔 운동'을 실시했다[본지 제1515호 10면 참조]. 이번 나눔운동의 대상 자는 미동부생명의전화(대표: 김 영호), 무지개의 집(소장 윤정숙, 사무총장 김은경),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각각 2천 달러씩 전 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뉴욕나눔 의집 박성원 목사, 무지개의집 김 희옥 디렉터, 미동부생명의전화 김 영호 목사, 참사랑교회 은희곤 목 사, 금동필, 임병춘, 김기철 장로.

〈기사제공: 뉴욕참사랑교회〉

뉴욕병원선교회 한국요양원 방문

뉴욕병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 사)가 지난달 21일 한국요양원을 방문해 독거노인들과 환자들을 위 로했다.

김영환 목사는 "저희 선교회에 서는 설, 추석 등 기회가 있을 때마 다, 또는 매주 방문해 예배를 드린 다. 올해도 연말을 맞아 예수그리

스도의 사랑이 한인 노인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며, 준비한 선 물을 일일이 나누었다. 휠체어나 침대 이동차를 타고 강당으로 모 여든 한인노인들은 선교회측에서 준비한 음식과 성탄절 찬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병원선교회〉

뉴욕제일교회, 주님의식탁선교회 방문 성탄행사

주님의식탁선교회(대표 이종선 목사)가 운영하는 '은혜의 집'에서 성탄절 찬양예배 및 만찬의 시간 을 가졌다. 이날 특별히 뉴욕제일 교회(담임 지인식 목사) 성도들이 피아노, 클라리넷, 플룻 그리고 트 럼펫이 하모니를 이룬 귀한 크리 스마스 캐롤송을 불러 참석자들에 게 성탄 분위기를 돋우었다.

예배 후에는 만찬과 선물을 나누 며 푸짐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KCS(김광석 회장), New York Adult Daycare Center(브라 이언권 대표), Getti Cleaners(백종 구 사장), 뉴욕한인골프협회(홍성 표 회장), 이창석내과(이창석 박 사), 뉴욕제일교회 등이 후원했다.

예배를 통해 드려진 헌금은 주님 의식탁선교회가 남자 홈리스를 위 해 운영 중인 "은혜의 집" 유지비 로 사용된다.

〈기사제공: 주님의식탁선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4년 송년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1세기 세계선교의 동향과 목회적 대응

〈9면에서 계속〉

이러한 기회의 확장은 기독교인 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가까 운 지역과 먼 나라에서 제자 삼는 일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라틴 아메리카가 개신교로 이동하고 있다. Pew Research 의 보고에 의하면 남미 지역의 종교적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캐톨릭이 우 세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사 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지금까지 보 지 못한 비율로 바꾸어지고 있다.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 인 관계를 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남미를 중심으로 주도했던 해방신 학의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을 뛰어 넘은 변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세계선교의 동향을 보면서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세움이 필요하다. 지역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 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 건강한 지역교회가 있어야 지속적인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교회들은 세계선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계발해 나가야 한다. 한 교회가 한 나라를

감당하거나, 한 교회가 한 신학교 를 운영하거나 하는 일은 매우 힘 들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여러 교 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선 교지에서도 실적 위주나 성장주의 사업을 버리고 현지에 맞는 현지교 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눈에 보 이는 선교로 인하여 더 큰 선교의 기회를 놓치고 다른 선교 사역팀의 협력을 막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선교와 사역의 전문화가 요 청된다. 한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 면 선교사가 1사람이 5사람 역할 정도는 해야지 유능한 선교사로 평 가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의 전 문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한 다. 마치 사도들과 집사들의 사역 을 나누었듯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 을 살펴서 함께 협력함이 필요하 다.

넷째, 지역교회에서 평신도 전문 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특별히 의 료분야에서는 전문의, 일반의(가정 의학), 간호사, 약사, 조산원, 한방 의 등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는 세 계 어디에서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컴퓨터를 가르치는 인력이 매 우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음악 선교 사, 회계사, 각종의 기술사 등을 훈 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평신도 사역자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98%를 차지하 는 평신도 자원을 놀리고 있다. 평 신도 사역자를 선교사로 부르는데 논란이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평 신도를 훈련시키고 함께 선교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다섯째, 은퇴 후의 생활 속에서 선교지에 단기 혹은 중기 선교사로 섬김을 은퇴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조기 은퇴는 너무 도 악명이 높다. 유능한 자원들이 유기되고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 은 퇴한 전문인들의 적절한 섬김의 장 으로 선교지와 연결하는 것은 하나 님 나라나 지역교회의 건강을 위해 서 필요하리라고 믿는다.

세계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놓고 교회들은 고민하고 힘들어 한다. 하 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교의 전략은 '예루살렘과 온 유 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행1:8)이기 때문이다. 나의 예루살렘을 섬김은 나의 땅끝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을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나라 건설에 벽돌을 놓는 장한 일이 되 게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2015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선교목사로 파송받은 황영진 목사(왼쪽)와 새 담임 박준열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취임 및 선교사 파송

황영진 선교목사 파송, 박준열 담임목사 서도석 장로 취임

뉴욕 선한목자교회 담임 황영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3대 담 임으로 박준열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28일 저녁 본 교회당에 1부 감사예배는 황영진 목사 인도로 나 영애 목사 기도, 성경봉독 임그레이 스 목사, 김종덕 목사 설교("아버지 께서 주신 잔", 요18:1-11), 특송 김 영환 집사, 헌금기도 김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목사, 장로 취임식은 한재홍 목사(RCA 교단 파송 치리목사)의 인도로 정태준 장로가 박준열 새 담 임목사를 소개하고 서약과 선포, 취 임패 증정이 있었으며 이재덕 뉴욕 교협회장의 축사, 에이미 닐랜드 목 사와 닐 마겟슨 목사의 권면과 축사 를 유승례 목사가 대독했다.

답사에 나선 박준열 목사는 "언더 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RCA 교단에 감사한다"며, "황영진 목사 님과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라고 확신한다. 재정적인 문제도 하 나님께서 해결해주셨다. 눈물로 기 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 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모델이 되도 록 계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도석 장로 시무장로 취 임식이 있었으며 3부는 황영진 선 교목사 임직파송식으로 열렸다. 박준열 목사의 인도로 정태관 장

로가 황영진 목사를 소개하고 선교 목사 임직파송 선포와 파송장 임직 패를 수여했다.

이만호 뉴욕목사회장의 축사, 김 수태 목사의 격려사, 전희수 목사의 권면, 뉴욕사모합창단의 축가가 있 은 후 황영진 목사가 답사하고 권오 현 박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 다.

2005년 임수식 목사에 이어 2대 담임으로 부임한 황영진 목사는 2015년부터 엘살바도로 선교사로 가게 된다.

황영진 목사는 "부족한 저에게 막 중한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께 감사한다"며, "동역자 박준열 목 사와 늘기쁜교회 김홍석 목사를 만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40세에 목사 돼 20년간 목회하고 젊을 때 은퇴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 했다"고 말하고 모든 참석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원정 기자〉

LA교계, 기도 불길로 새해맞이 준비

www.chpress.net

각 교회마다 특새, 부흥성회, 각종 수련회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침체여파로 한인교계도 긴축살림을 살아온 2014년이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개 교 회에서는 뜨거운 기도집회가 이어져 영육간의 한파를 녹이고 있다. LA교계는 지난 11월 다민족연합기도회 모임 이 행사 전날 장소가 바뀌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교계 연합사업의 어려움을 보여 안타까움을 안겨준바 있다. 그 러나 연말연시를 맞아 크고 작은 개 교회마다 기도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기도로 무장하며 새해를 맞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호세에 소재한 임마누엘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2015년 1월 10 일 제직세미나를 열고 제직들이 1년 동안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 도록 재도전받는 시간을 갖는다.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는 '회개에서 꿈으로..'라는 주제로 5 일부터 17일까지 신년 특별기도회 를 갖는다. 나성영락교회(담임 김 경진목사)는 5일부터 10일까지 특 새를 준비했으며 토요 집회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시간을 갖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2 일부터 10일까지 한성윤 목사(나 성남포교회), 박현식 목사(얼바인 사랑의교회), Kinton Beshore 목사 (Mariners Church), Daniel New-목사(아주사신학대학원교



각 교회들이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40일 특별새벽기도회 가 진행중인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요안나 여선교회원들의 특별찬양.

수),Harold Y.Kim 목사 등이 말씀 은 전한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역시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새벽기 도회를 열고 신승훈 목사(주님의영 광교회), 김인식 목사(LA웨스트힐

장로교회),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 리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 회), 김춘근 장로 등이 단에 선다.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 사)는 '송구영신여리고 특별기도회' 를 29일부터 1월3일까지 본 교회에

서 갖는다. 1월 1일에는 나성순복음 교회기도원에서 신년축복기도원대 성회를 준비했다.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와 나침반교회(담임 민 경엽 목사)도 1월 5일부터 10일까 지 신년축복새벽기도회를 담임목사 를 강사로 준비했다.

한편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 창수 목사)는 2014년 연말특새를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남가주교회 성도들은 새벽 일찍 성 전 문이 열리자마자 2000여명이 성 전본당을 메운 가운데 한규삼 목 사(뉴저지 초대교회), 유진소 목사 (ANC 온누리교회), 김지찬 목사(총 신대교수)등이 말씀을 전했다.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도 '독수리 40일특별새벽기도 회'를 지난 12월 1일부터 1월24일 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 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 차 병학 목사(나성안디옥교회) 등을 강 사로 40일 동안 진행되며 특새기간 중인 16-18일 신년말씀성회 및 제 직 수련회(강사 이준호 목사)도 준

이 외에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각 기 형편에 따라 특별 기도회를 갖고 새로 오는 2015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무장에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8회 올네이션스연합기도 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본부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대표: 정 윤명 목사/월넛크릭 지아이엠교회 담임)가 주최하는 미국과 열방의 회복 을 위한 제 8회 올네이션스연합기도 컨퍼런스(All Nations Intercessory Union Prayer Conference)가 2015년 1월 25일(주) 오후 6시부터 북가 주 이스트베이에 위치한 Life change Baptist Church(인도네시아교회)에 서 개최된다.

▲문의: (925)639-9527

제 5회탈봇가정사역컨퍼런스

제5회가정사역컨퍼런스'가 2015년 1월 23일과 (금) 24일(토)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목회자, 선교사, 사모, 상담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 로 탈봇신학교와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주최로 탈봇신학교(앤드류뱅 큇룸:13800 Biola Ave, La Mirada, CA90639)에서 열린다. 1월23일(금)은 관계중심적 목회에 관해 노만라이트박사의 강의와 함께 멘토쉽에 대해 탈 봇신학교 벤신교수, 한기홍 목사, 강준민 목사, 노진준 목사가 강사로 나서 고, 상담설교에 대해 전형준 교수(백석대목회상담학과)가 나서게 된다. 1 월24일(토)은 자녀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탈봇목회상담학교수인 렉스존 슨 교수, 그리고 중년기의 정체성과 윤리규범에 대해서 써니송 교수가 진 행하게 된다. 통역이 있으며, 등록은 12월 31일까지는 \$30이고 그 이후는

▲문의: www.family4family.com 또는 (714)287-2458



한국의 인디밴드 블루엔블루 미서부 콘서트가 24일 더텐트, 27일 KCCC 소극장, 그리고 28일 나성영 락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더텐트 위드 블루엔블루라는 주제로 열린 파킹랏 콘서트 장면

블루&블루 미서부 순회공연 성료

무비자입국 한국인 불체자 상당수

무작정 정착 급증...한인교계 관심 가져야

한국이 미국비자면제국으로 지 정된 2008년 11월 이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 방문객들이 체 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장기 거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한 인교계에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임목사 등 교계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민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지 않고 정착하려는 자들로 대부 분 4-50대로 자녀가 고등학생들이 다. 무비자로 입국한 자들의 체류기 간은 90일이며 90일 이전에 한국 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신분변경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교계에서는 이들 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국으로 귀국해 신분변경 후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 야 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학생비 자 등 타 신분일 경우 비자에 명시 된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 신분변경 혹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 간(Grace Period)이 주어진다. 그러 나 무비자상태에서 하루라도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며, "무비자입국자가 불체자 가 됐을 때 해결방법은 시민권자와

의 결혼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인 터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체류기간을 넘긴 무 비자 입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재입국할 때 180일 이내에 한 국으로 귀국한 자들이 학생이나 취 업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서 입 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민국에서 정한 두 가지 조항에 해 당되는 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 말했다.

첫째 3년 바(bar): 무비자입국자 가 체류기간을 180-360일을 넘긴 경우는 이민비자, 학생, 취업 등 다 른 비자를 받을 자격조건이 되더라 도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둘 째 10년바(bar): 1년이상 체류기간 을 넘긴 자들은 10년간 입국이 거 부된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가 최근 집 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 시행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에 방문한 한국 인은 74만3846명에서 110만7518 명으로 무려 49%나 늘었다. 이어 2011년(114만5216명·3.4% 증가), 2012년(125만1432명·9.3% 증가), 2013년(135만9923명·8.6% 증가) 으로 미국을 찾는 한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체

류비율은 연간 20%를 넘겨 비자면 제국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태다. 미국은 2002년 아르헨 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 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불체자 비율의 증가 로 6개월 이상 미국방문을 계획 중 인 관광비자 신청자들이 비자신청 이 거부되는 비율이 증가돼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국대사 관에서는 관광비자 허가 대신 3개 월짜리 무비자 방문을 유도하고 있 다. 따라서 관광비자(B1, B2)를 받 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반드시 체 류해야 할 근거가 제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광비자 취득 역시 쉽지 않게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LA 군사랑선교회 송년 선교행사

미주 LA에 있는 군사랑선교회(회장 김회창 목사)는 지난 12월 27 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 예배실에서 50여명이 모여서 2014 년 12월 송년 선교행사를 가졌다.

1부 예배와 찬양단 발표와 2부 선교비 전달식과 3부 회원 친교 식 사 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회 창 목사의 인도로 개척자 원로 사 무총장인 이신모 장로의 기도와 창 립자인 명예회장 임동선 목사의 '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군인들과 미국 한국 회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권화순 장로의 기 도후 시각장애인회 찬양, 삼일여성 동지회의 찬양과 수지박, 애미최의 율동 찬양이 있었으며 권다니엘 목 사가 축도했다.

특별히 금번에는 조순제 2사무총 장의 선교회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 며 김회창 회장은 군생활 중 시력 을 잃은 추영수 목사가 이끄는 비

AUTHORIZED ddds DISTRIBUTOR

DINAMICS THOILTS! X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T. 516.354.8484 F.516.354.8383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전시각장애인선교회와 중국선교사 로 떠나는 총무 이성희 목사 등 봉 사자들을 격려했다.

군사랑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토 요일 11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 (500 S. Shatto , LA)에서 모인다.

▲문의: (818)472-4827 이종수

〈기사제공: 미주LA군사랑선교회〉

더텐트 파킹랏콘서트, KCCC 등 한국의 크리스천 뮤지션들로 구 성된 인디밴드 블루&블루(리더 황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E-mail: la@chpress.net

종률 집사) 미서부 순회공연이 24 일 오후 7시 더텐트 파킹랏콘서트, 27일 오후 2시와 7시 KCCC 2층에 위치한 소극장, 그리고 28일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지나가리라', '소 풍', '포도', '연애후반전' 등 블루엔 블루의 곡들과 'How Deep Is Your Love' 등 올드팝송을 선사했다. 황종률 집사는 "4년 만에 찾아와

공연을 하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 뉴욕, 뉴저지에서 미 동부지역 콘서트를 가졌고 24일과 27일 LA에서 서부 지역 콘서트를 열었다. 미국에 와보 니 2008년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피부 로 와 닿아 마음이 무거웠다. 저희 블루엔블루의 '지나가리라'라는 곡 은 현재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닌 언젠가 지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담 고 있다. 이 곡을 통해 콘서트에 찾 아온 관객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4일 콘서트에는 테너 오위영 목 사,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씨가, 그리고 27일에는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와 색서폰연주자 캘빈박 씨가 찬조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박준호 기자〉

미주 LA 군사랑선교회 송년선교행사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렸다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어키, 그리스,로마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쥴,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김스전기 한남체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Hanna Flower Shop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www.chpress.net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回季地回见112季炮

미준한인이민 112주년 기념 및 201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The 1/12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and the 12th Celebration of Korean American Day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CCKI:전국총회장 김창원 박사/하와이)를 승계한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사회에서 매우 자랑스런 역사 단체입니다. 매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은 미주한인재단이 제정에 앞장섰던 사업으로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제정되고 2005년 12월에 미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된 미국의 국가기념일입니다. 2015년은 미주한인이민 112주년의 해이자 제12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일로 미주한인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6일(화요일)

10:30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선포식-(예정)
 장소: 500 W. Temple St., CA90012

1월 11일(일요일)

- 201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 및 음악 콘서트
- 장소: 윌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CA90010 일시: 2015년 1월 11일 오후 6:00 pm
 - 1) 기념 감사예배 2) 음악 콘서트 주최: KAF-USA/LA 주관: 한인문화센타

1월12일(월요일)

- 9:30남가주 윌셔 초등학교 현기식 및 차세대 세미나-(예정)
 장소: 4900 Wilshire Bl., LA, CA90010
- 11:00 윌턴 플레이스 초등학교 현기식및 차세대 세미나-(예정)
 장소: 745 S. Wilton Pl., LA, CA90005
- 12:00캘리포니아 주의회 선포식(Sacramento)-장소: State Capitol, Sacramento, CA94249

1월13일(화요일)

- 9:00 굿 사마리탄 병원 현기식 장소: 1225 Wilshire Bl., LA,CA90010
- 10:30 LA 한인회관 기념식 및 양국기 게양식 장소: 981 S. Western Ave., LA, CA90006 주최: KAF-USA/LA 주관: LA한인회
- 17:00 Irvine 시의회 선포식-(예정)
 장소: One Civic Center Plaza, Irvine, CA92623
- 17:00 Buena Park 시의회 선포식-(예정)
 장소: 6650 Beach Bl., Buena Park, CA90622
- 18:00 Glendale시의회 선포식
 장소: 613 Broadway, Glendale, CA91206

1월14일(수요일)

● 9:45 LA 시의회 선포식 장소:LA 시의회 200 N. Spring St. LA, CA90012

1월15일(목요일)

11:00 미주한인의 날 기념 골프대회(전국대회)
 장소: California Country Club골프장:
 1509WorkmanMillRd,CityofIndustry,CA90601
 (626) 333-4571



미주한인재단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USA

Tax ID: 20-2356362 (501(c)3)

- 공동 대회장: 제임스 안(LA 한인회 회장), 김종현(재미중소기업협회 회장)
- 골프대회준비위원장: 김영조 한인문화센터: 단장 우정자
- 준비위원: Karen Ol(USA),이용남(LA),김동조(Glendale),임종혁(Buena Park),조현포(Sacramento), 김정혜,정희남,조지 최,송규식(Irvine),Jeff Ol(LA한인회)

미주한인재단-USA 전국 총회장 김성웅 / 미주한인재단 -USA 명예 전국 총회장 박상원 연락처: 미주한인재단 사무국 Tel. 213-784-2075 Fax 213-381-6234 e-mail: kafusa21@gmail.com

각지역회장

정동철(LA,CA),김동균(Honolulu,HI), 이명숙(Philadelphia), 이근선(Baltimore,MD), 허인욱(WashingtonDC), 류제봉(Queens,NY), 최영배(Brooklyn,NY), (New York,NY), 백병주(Rochester,NY), 노웅(NJ), 강태복(Ridgefield,NJ), 신성순(Manalapan,NJ), 이금숙(Palisades Park, NJ),안영대(Orange County), 차만재(Central,CA), 이창원(Las Vegas, NV), 이은자(Atlanta,GA), 이흥복(Vancouver,WA), 신원택(Spokane,WA), 고경호(Federal Way,WA), 패티김(Tacoma,WA), 김동조(Glendale,CA), 윤요한(Anchorage,AK), 박서경(Boise,ID), 이이호(Bozeman,MT), 정일화(Denver,CO), 류기원(Eugene,OR), 한순(Seattle,WA), 김도산(Olympia,WA), 안무실(Portland,OR), 김두남((Albuquerque,NM), 박우서(SF,CA), 조현포(SA,CA), 김경자(Tustin,CA), 송규식(Irvine,CA), (Pasadena,CA), 이명환(Fullerton,CA), 임종혁(Buena, Park), 제임스 로(Victoville,CA), (San Bernardino,CA), 김용만(Houston,TX), 김종갑(Chicago,IL), 신명숙(Detroit, MI), (Huntsville,AL), 이정훈(Fairfax,VA), 박선영(Santa Ana,CA), 김현숙(San Pedro, CA), 김재호(Barstow,CA),박진영(La Palma)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은 전국 정관에 따라 미주한인재단 전국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뉴욕에서 개최된 미주한인이민 100 주년 기념사업회(CCKI) 마지막 전국총회에서 미주한인재단 초대 전국 총회장(임기 2004.1.1-2004.12.31)으로 조병태 CCKI-뉴욕 공동회장이 선출되였고, 조병태 전국 총회장은 2004년 1월 13일에 제1회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과 기념행사 참석과 더불어 전국총회를 LA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대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임기 2005.1.1-2005.12.31)은 2005년 1월 13일 LA에서 개최된 전국정기총회에서 윤병욱 CCKI-LA대표회장이 선출되었고, 제3대 전국 총회장(임기 2006.1.1-2007.12.31)은 연임하였으며, 제4대 전국총회장(임기 2008.1.1-2009.12.31)은 이정수 미주한인재단-Dallas 회장이 Las Vegas 전국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제5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0.1.1-2010.12.31)은 영구제명되었고, 제6대전국 총회장(임기 2011.1.1-2011.12.31)은 명돈의 미주한인재단-Baltimore, MD회장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국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제7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2.1.1-2012.12.31)은 박상원 미주한인재단-Los Angeles회장이 2011년 11월 19일 워싱턴DC 전국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고,제8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3.1.1-2014.12.31)은 2012년 9월 20일 Los Angeles 전국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어 연임하였으며, 제9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5.1.1-2016.12.31)은 2014년 8월 28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전국 정기총회에서 김성웅 미주한인재단-LA 전임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담임목사: 이지용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슝희

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

Tel. (718)639-3021 Fax.(718)507-637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Fax.(303)422-6943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담임목사: 임슝진

미주 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벧엘교회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담임목사 : 장세정

브리지교회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3521 Lomita BI, #200 Torrance CA 90505

Tel.(310)749-0577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샤롯한인장로교회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Tel.(347)753-4551

담임목사: 오세훈

세계소망교회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 최창섭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el.(718)570-5858

퀸즈한인교회

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 (818)952-2449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i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은혜한인교회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Tel.(703)941-4447 Fax.(703)941-4448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담임목사: 이종용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East Elmhurst, NY 11369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풍성한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담임목사: 박효우

Los Angeles CA 90058

2911 Beverly Blvd.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담임목사 : 김선만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2014년도에 국내외에서 피종진 목사를 초청하여 각 부흥성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신 교회와 각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83차 해외성회(183th Overseas Assembly)

12(월)~15(목)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267)575-5617

미국(U.S.A) 뉴욕 빛과소금교회(정순원 목사)

캐나다(CANADA) 캘거리 목회자 사모세미니 장소: 캐나다 캘거리 열두샘교회(김흥식 목사)

캐나다(CANADA) 캘거리중앙장로교회(고철주 목사)

캐나다(CANADA) 캘거리순복음중앙교회(김원효 목사)

캐나다(CANADA) 캘거리제일장로교회(김진우 목사)

캐나다(CANADA) 캘거리벧엘교회(이재영 목사)

캐나다(CANADA) 캘거리영락교회(송영배 목사)

27(화)~28(수) 미국(U.S.A)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국 개국 18주년 기념성회

장소: 필라델피아 새한장로교회(고택원 목사)

서울 새벽별교회(강병두 목사)

18(수)~20(금) 진주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23(월)~26(목)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16(금)~17(토) 미국(U.S.A) 뉴욕 서광교회(최고센 목사)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부천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인천 초원교회(김태곤 목사)

20(월)~22(수) 미국(U.S.A) 엘벧엘교회(김성신 목사) 23(목)~26(주) 미국(U.S.A) LA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28(화)~31(금) 충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서울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양평 양수리수양관(원장 피영민 목사)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제181차 해외성회(181st Overseas Assembly)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제직세미나

충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서울 성문교회(정영근 목사)

서울 성문교회(정영근 목사)

북인천중앙교회(장사무엘 목사)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인천 성원제일교회(박명환 목사)

대전 성광장로교회(이상구 목사)

광주 샬롬선교센터(고정임 목사)

서울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기도치유아카데미(원장 장요한 목사)

28(금)~29(토) 미국(U.S.A) 뉴욕연합성회(준비위원장 김경순 목사)

중국(China) 정주, 구련지역성회

인천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12(토)~13(주) 일본(JAPAN) 오사카 새생명교회(박승희 목사)

청주금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

김포중앙순복음교회(양부성 목사)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세계복음화부흥사연합회(김명숙 목사)

일본(Japan) 동경 산상연합성회(대회장 김태실 목사)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의왕 대흥성결교회(강환경 목사)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21(월)~23(수) 충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강영선 목사)

성령운동국제총연합회(대표회장 황세환 목사)

목회자부흥사연수원(원장 오관석 목사)

인천 엘림교회(주흥자 목사)

서울 주하늘교회(이정원 목사)

국가조찬기도회(장소: 서울 코엑스)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편무인 목사)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제일교회(오세일 목사)

제182차 해외성회(182nd Overseas Assembly)

24(월)~25(화) 미국(U,S,A) 펜실베니아 Global Mission Seminary(학장 Joseph Kim)

26(수)~27(목)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267)575-5617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3.1절 한민족통일세계기도대성회(대표총재 한장석 목사)

제천 축복교회(김성규 목사)

10(월)~12(수)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13(목)~14(금)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태국(Thailand) 방콕 경서교회(김영수 목사)

1월

1(수) 오후

1(수)~ 3(금)

6(월) 오전

7(화) 오전

9(목) 저녁

12(주) 오후

13(월) 오후

14(화) 오후

18(토) 오후

1(토) 오전

3(월)~ 8(토)

9(주) 오후

13(목) 오전

16(주) 오후

17(월) 저녁

18(화)~20(목)

21(금) 철야

24(월)~27(목)

28(금) 철야

3월

1(토) 오전

3(월)~ 5(수)

6(목) 오전

7(금) 오전 9(주일) 저녁

10(월)~14(금)

19(수)~20(목)

17(월) 오후

22(토) 오전

23(주) 오후

4월

1(화)~ 4(금)

6(주)~ 8(화)

11(금) 오후

14(월) 오전

20(주) 저녁

24(목) 오후

27(주) 저녁

28(월) 오전

28(월)~30(수)

5월

1(목) 저녁

6(화)~ 8(목)

14(월)~17(목)

- ·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 미국 Philadelphia Faith대학원(D. Min)
-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Th. D)
-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 부총장
- · 미국 Boston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장
- 한영신학대학교 운영이사장
- (재)세계기독교부흥사협회 대표총재
- ·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 HP: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25(031)472-7212

☎ 010-3224-2345

25(02)436-1777

☎(031)772-6015

☎(041)852-2211

☎ 010-9492-1770

2 010-3224-2345

☎(031)947-0091

25(02)3411-9191

26(714)828-8033

26(714)446-6200

☎(043)853-3900

☎(043)853-3900

25(02)2684-2926

2 010-7612-7500

3(02)2684-2926

☎(02)573-7797

25(032)546-9182

2 010-3793-4430

☎ 010-3224-2345

☎(032)578-0591

25(042)271-6406

25(031)472-7212

25(062)432-6392

☎ 010-9271-7479

☎ 010-3683-1005

2 070-8231-4862

2 010-7646-7769

2 010-3224-2345

☎ 070-7434-1003

2(215)782-1117

☎(032)575-1654

2 010-9954-9191

25(043)269-5211

25(043)269-5211

☎ 010-6330-3503

25(043)853-3900

2 010-3224-2345

25(031)425-0105

2 010-9691-0675

☎ 070-8625-9118

☎(031)947-0091

☎ 010-3224-2345

25(090)3162-6913

☎ 66-89-241-3691

31(토) 오전 6월

18(주) 오후

20(화) 저녁

21(수) 저녁

22(목) 저녁

23(금) 저녁

25(주) 오전

25(주) 오후

1(주)~ 4(수)	부산 희망의교회(조경석 목사)	☎ (051)612-9191
5(목)~ 6(금)	부산 열린문교회(김영관 목사)	2 010-5546-8291
8(주) 저녁	서울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	☎ 070-8635-5105
9(월)~11(수)	청주 국제실로암영성원(원장 이기쁨 목사)	☎ (043)262-3622
11(수)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전도부 주관 전국 사모	세미나
	장소: 대전 서대산드림리조트(원장 김종준 목사)	26 (041)753-2662
12(목) 저녁	남북통일기원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대회정	이애라 목사)
16(월) 오후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	25 (02)435-0541
	주최: 목회자사모신문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17(하) 오저	서울 미리안서교하(하장 반원규 목사)	₱ 010-4288-5028

제184차 해외성회(184th Overseas Assembly)

30(월) 오후 미국(U.S.A) Houston University Nyskc Family Conference 2014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7월

1(화)~ 3(목)	미국(U,S,A) Houston University Nyskc Family	Conference 2014
4(금)~ 6(주)	미국(U.S.A) 휴스턴한인장로교회(송영일 목사)	☎(832)215-7022
7(월)~ 9(수)	미국(U.S.A)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순복음지방회 (
	(지방회장 이선자 목사)	☎ (714)220-7660
15(화)~17(목)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 (02)436-1777
18(금) 오후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 010-2711-7777
19(토) 오전	서울 행복이넘치는교회(정정수 목사)	☎ 010-8701-5764
21(월) 오후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연합성회(준비위원장	장요나 선교사)

베트남(Vietnam) 나트랑 연합성회 **284-83-842-1783** 22(화) 오후 베트남(Vietnam) 달랏지역 연합성호 24(목) 오후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외곽도시성회 25(금) 오전 베트남(Vietnam) 비라카이대학교 성회 28(월)~30(수) 충주 금식수양관(원장 김승자 목사) **26**(043)853-3990

8월

3(주)~ 6(수)	태백순복음교회(오대석 목사)	☎(033)552-0735
7(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8(금) 오전	광복69주년 기독시민 통일기도회(장소: 서울 여전도회관)
	THE OF THE MENT OF THE PROPERTY AND ADDRESS AD	namblu)

11(월)~12(화) 캄보디아(Cambodia) 씨엠립 원주민교회

13(수)~15(금) 캄보디아(Cambodia) 시스폰 원주민교회 17(주일) 저녁 서울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

제185차 해외성회(185th Overseas Assembly)

18(월)~19(화)	일본(Japan) 총회신학교(총장 정소영 목사)	
	나리타Campus(학장 정스데반 목사)	☎ 090-6523-9118
20(수) 오후	일본(Japan) 동경 갈멜산금식기도원(원장 김태실 목사)	☎ 090-6535-9118
21(목) 오후	일본(Japan) 동경 우에노Park광장 노숙인 전도대성회	
	(주최: 일본선교회)	☎ 070-8625-9118
22(금)~23(토)	일본(Japan) 총회신학교(총장 정소영 목사)	
	나리타Campus(학장 정스데반 목사)	☎ 090-6523-9118
25(월) 저녁	제주도수양관 치유아카데미(원장 장요한 목사)	

31(주) 오후 9월

26(화) 저녁

29(금) 오후

(型)~ ((工)	공구 인생생측인교회(공사다 즉사)
8(월)~10(수)	의정부 실로암기도원(원장 고화순 목사)
14(주) 오후	광주 외국인선교회(회장 노인자 목사) 외국인부흥성회
15(월)~16(화)	광주 송정우리교회(노인자 목사)
18(목) 오전	인천 큰부흥교회(김진환 목사)
19(금) 철야	양주 예수능력교회(류찬규 목사)
22(월) 오후	부천 한국기독교목회자연수원(원장 이재범 목사)
22(월)~24(수)	청주 영천교회(조영은 목사)
26(금) 오후	수원 주바라기부흥사연수교육원(원장 손연순 목사)
28(주)~30(화)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29(월) 오후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원장 이 선 목사)

대전 서부제일교회(박능팔 목사)

평택 영광제일교회(엄태환 목사)

1/위), 3/스) 고즈 하서해보하고치/호되고 모네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1(수) 오전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 (041)531-7216
3(금)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 (031)947-0091
6(월)~ 8(수)	서울 새생명축복교회(강은숙 목사)	☎ (02)3142-5336
13(월) 오전	기도치유아카데미(이사장 피종진 목사, 총재 장요한 목	목사)
13(월)~14(화)	동서울노회, 장소: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 (02)3495-1001
15(수)~18(토)	남북통일평화기도회(장소: 평양 봉수교회)	
	주최:(사)조국평화통일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19(주)~22(수)	안산 서부제일교회(공상기 목사)	☎ 010-3733-3843
저	186차 해외성회 <mark>(186th Overseas</mark>	Assembly)
24(금)~25(토)	미국(U.S.A) 새생명교회(조주호 목사)	26 (858)571-0445
26(주) 오전	미국(U.S.A) LA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2 (714)521-0991

27(월)~29(수) 미국(U.S.A) 라스베가스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강일진 목사) 주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목사회, 라스베가스교회협의회

2(702)453-5433 31(금) 오후 서울 선교중앙교회(정재갑 목사) **☎**02)813-8455

11월

10월

2(917)599-7738

25(347)513-1351

25(403)771-1441

a(403)992-1004

tt(403)263-0330

2(403)249-5056

26(404)273-8665

23(403)969-3659

2(215)668-3599

☎(02)547-9110

☎(055)748-7209

25(031)472-7212

☎ 84-91-3753-183

☎ 070-8635-5105

☎(042)527-4330

26(031)947-0091

25(031)657-7544

2 010-5458-6040

☎ 010-6223-0612

☎ 070-8819-3353

☎ 010-9140-0091

☎ 010-4572-4572

25(032)668-3191

2 010-9235-7123

2 010-9416-7800 **25**(041)531-7216

☎(02)520-0801

1(토) 오후	다드림 찬양율동훼스티발	☎ (041)531-7216
2(주) 오후	주최: D.W.M 다드림세계선교회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2(주) 오후	서울 양문교회(신일수 목사)	☎ 010-5312-7597
3(월)~ 5(수)	대만(Taiwan) 화련지역 원주민교회 복음화연합성회	
0(0) 7(7)	(준비위원장 류계란 목사)	☎ 886-0930-654-552
6(목)~ 7(금)	대만(Taiwan) 일원지역 원주민교회 복음화연합성회	- 040 5000 4070
10(월)~13(목)	서울 순복음사랑교회(김다윗 목사)	☎ 010-5330-4070
14(금) 오전	성령부흥사연수원(대표회장 황세환 목사)	2 010-9954-9191
14(금) 오후	동탄 꿈너머꿈교회(김현수 목사)	2 010-7667-4719
17(월)~19(수)	서울 가나안교회(장병익 목사)	☎ (02)2643-4296
20(목) 오후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2 010-3224-2345
22(토) 오전	김포동산교회(김종우 목사)	☎ (031)996-9155
23(주)~26(수)	안산 임마누엘교회(이성남 목사)	25 (031)494-7750
24(월) 오전	서울 대신성결교회(박현모 목사)	☎ (02)2613-2011
28(금) 오후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대표회장 고화순 목사)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주일) 저녁	서울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	☎ 010-3683-1005

12월

제187차 해외성회(187th Overseas Assembly)

1(월)~ 5(금)	태국(Thailand) 방콕 경서교회(김영수 목사)	☎ 66-89-241-3691
7(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8(월) 오후	2014 서울 · 세계 평화의 밤	
12(금) 오전	서울 큰영광교회(신길환 목사)	25 (02)467-9826
15(월)~17(수)	전주 크신능력교회(김능력 목사)	☎ 010-4524-8812
18(목)~19(금)	서울 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0(토) 오후	서울 청파중앙교회(김항우 목사)	25 (02)713-2051
20(토) 오후	다드림세계선교회 다드림예술신학원(원장 전정순 목사) (선교예술제
	협찬: 미국 보스톤 합동해외총회신학대학(학장 이오네시!	모 목사)
22(월)~23(화)	일본(Japan) 요까이짜중앙교회(선안수 목사)	☎ 070-4656-3836
23(화)~24(수)	일본(Japan) 요까이짜 아야마기도원(원장 남덕순 목사)	☎ 070-4656-3836
25(목) 오전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02)3411-9191
31(수) 저녁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02)3411-9191
	7(주) 오후 8(월) 오후 12(금) 오전 15(월)~17(수) 18(목)~19(금) 20(토) 오후 20(토) 오후 22(월)~23(화) 23(화)~24(수) 25(목) 오전	7(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8(월) 오후 2014 서울 · 세계 평화의 밤 12(금) 오전 서울 큰영광교회(신길환 목사) 15(월)~17(수) 전주 크신능력교회(김능력 목사) 18(목)~19(금) 서울 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20(토) 오후 서울 청파중앙교회(김항우 목사) 20(토) 오후 다드림세계선교회 다드림예술신학원(원장 전정순 목사) (협찬: 미국 보스톤 합동해외총회신학대학(학장 이오네시! 22(월)~23(화) 일본(Japan) 요까이짜중앙교회(선안수 목사) 23(화)~24(수) 일본(Japan) 요까이짜 아야마기도원(원장 남덕순 목사) 25(목) 오전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피종진 목사TV, 인터넷, Radio 방송설교

- CTS 기독교TV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 CBS 위성TV방송
- 매주 일요일 오후 5:30
- GoodTV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 기독교인터넷방송 www.c3tv.com
- 인터넷복음방송
- www.Jesus119.net
- CBS인터넷방송
- www.cbs.co.kr

- 기독TV인터넷방송 www_kidoktv_net
- Jesus-tv인터넷방송
- www.jesus-tv.net

-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방송
- www.kukinews.com 하아인터넷방송
- www.ichn.or.kr
- 미주크리스천헤럴드방송 www.christianherald.com
- 월드미션뉴스인터넛방송
- www.wgnews.org
- 크리스천헤럴드방송(LA)
- 매주 화요일 밤 11:30
- 미국라디오한국선교방송(워싱톤주) - 매일 오전 5:20
- 북가주복음방송(캘리포니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워싱톤기독교복음방송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ᆲ남서울중앙교회 대한예수교 🦜 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Godbless3377@gmail.com

